

Weekly Bigwool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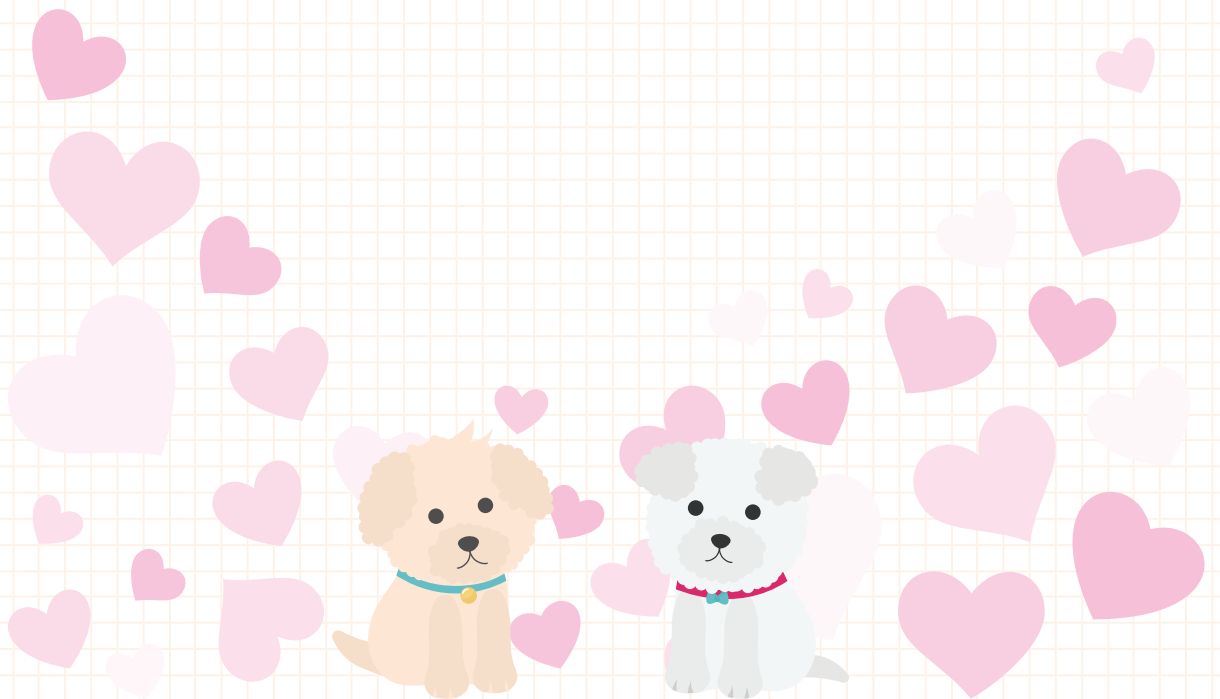
published in Feb, 2020, Seoul | No. 01

#큰울림국어연구소 #특강자료

#정합적인해설

#국어치열하게독하게 #어차피국어는유대종

#힘내라수험생 #힘내라대한민국



1일 화작 + 독서

화법과 작문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0

독서 1)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15 신기루

2)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6-38 경험적 지식의 형성 과정

3) 2014학년도 대수능 A형 16-18 분젠의 분광분석법의 진화

2일 화작 + 문학

화법과 작문 : 2020학년도 9월 1-10

문학 1)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16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박용래, 「월훈(月暈)」

2) 2009학년도 대수능 20-23 김승옥, 「역사(力士)」

3)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1-33 안민영, 「매화사」

3일 문법: 인강 Day

0강. 베이직 트레이닝 + 1강. 3패턴

4일 문법: 금주 복습1 + 독서

문법: 금주 복습1

독서 1)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6-18 취기재

2)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9-21 플래시 메모리

3)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7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

5일 문법: 금주 복습2 + 문학

문법: 금주 복습2

문학 1) 2008학년도 대수능 27-30 김만중, 「사씨남정기」

2)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16 정지용, 「발열」 + 김영랑, 「거문고」 + 최승호, 「대설주의보」

3)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44-45 이근삼, 「원고지」

1부

현장과제
1주차

큰 울림국어연구소

집필진 소개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1위, 現 스카이에듀 국어 1위 유대종입니다.

저는 이 위클리 교재에 대해 한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읽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실장에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박상혁

위클리 큰울림의 기획 및 최종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 의도는 1)수업의 풀이 방식과 동일한 해설을 만들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쪽쪽 읽는 방식의 다른 문제집 해설과 달리 2)일정 부분까지 읽은 후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고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활용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민의 양이 성적 상승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치열하고 독한 고민을 거듭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진표

독서 해설 최종검토와 더불어 최종 편집 및 교정 교열을 맡고 있습니다. 학습에 불편 끼치지 않도록 오타자 및 오류 없는 교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하성

지문형 문법 제작 및 선정 위주로 담당하며 OX, 기입형 문항 제작 과정과 오지선다 문항 선정에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강 학생들의 문법 개념 학습을 돕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주에는 그간 문법 강의에서 담긴 문법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0강부터 3강까지 문법총론 강의를 모두 학습한 학생들은 그간 학습한 내용들을 되돌아 보고, 0강부터 3강까지의 강의를 모두 듣지 못한 학생들은 강의를 모두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주기에 맞춘 교재 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오태범

문법 OX 및 단문형 문항 제작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한때는 문법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문법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홍의선

현재 저는 끝판왕 퀄리티 독서 지문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저대로만 읽으시면 여러분 성적표에 숫자 1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서 방향에 내비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채민혁

독서의 과학, 기술 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큰울림만 꾸준히 따라오면 직접적인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지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욱

독서 인문 / 사회 / 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표현과 글의 흐름에 맞춘 정공법적 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김상욱

시문학과 수필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티를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권의

문학의 산문 해설 작성하는 임권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해설의 주안점은 '여러분과의 공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가 헛갈릴 만하고, 왜 헛갈렸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

1일 화작 + 독서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생조류보호협회의 ○○○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다가 유리창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걸까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 등의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 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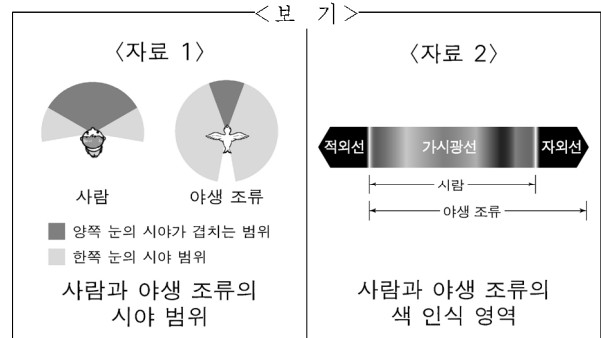
- ①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
-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
-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
-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 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③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 ④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었다.
- ⑤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3.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료 1〉은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를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7]

[4~7] (가)는 모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모둠 과제 안내장]

- 과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쓰기.
- 조건: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가)

학생 1: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 보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맛나거리에 대해 쓰고 싶은데, 어때?

학생 2: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 □□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학생 3: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학생 1: 그게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 2: 응,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 거기서 [A]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

학생 1: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학생 3: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 3: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

학생 3: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학생 2: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았던데, 우리 [B]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제당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학생 3: 그리고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학생 1, 2: 좋아.

학생 3: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학생 2: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학생 1: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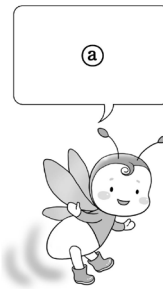
학생 1: 그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학생 2: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때?

학생 1, 3: 응, 좋아.

학생 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제당'에서 시작한다.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 명칭의 유래와도 관련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들[四郎(사랑)]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C]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주는 산할머니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바람맞이 언덕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20여 분 걸다 보면 '사랑미술관'이 나온다. 이곳은 우리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사랑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화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해설해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미술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숲이 우거진 공간이 나오는 데,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며 아름다운 반딧불을 즐길 수 있다. 여름날 사랑미술관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반딧불이 축제장에 가 보는 것도 좋다.

비쁜 학교생활로 인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는 도시,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인 사랑시의 이야기를 따라 길을 떠나 보자.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2'가 △△거리, □□길을 언급한 것은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3'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 ③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군.
-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군.

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6.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 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할머니 제당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 ②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도 함께 소개한다.
- ③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도 설명한다.
- ④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⑤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한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의 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 ②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 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 ③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 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 ④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 ⑤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와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미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8-10]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려고 함.

○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음. ㉠
- 사극의 본질은 주제 의식에 있음. ㉡
-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 ㉢
-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 ㉤

[글의 초고]

드라마 ‘○○’이 인기를 끌면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허구적 창작물이다. 따라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 과거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 쉬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이 사극에서 다뤄지는 상황을 실제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달리 사극은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극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극의 내용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도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초고 작성 후 수행한 자기 점검]

○ 점검 내용: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 수정해야 글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

○ 고쳐 쓴 마지막 문단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현실로 소환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극에서 재창조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

8. ㉠~㉤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통일성이 약화되므로, 허구적 창작물이 사극의 본질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② 실제 역사와 사극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논지가 흐려지므로,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③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여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④ 실제 역사와 사극의 긍정적 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사극의 본질은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⑤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사극이 갖는 효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10.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①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② 사극에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
 ③ 사극에서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의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④ 사극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은 허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⑤ 사극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는 역사적 사건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15]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 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차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빛을 받아 가열되고, 지표면 공기는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운데, 이러한 밀도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사막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나무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하여 사람 눈에 곧바로 도달하므로 우리 눈에는 똑바로 선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계속 굴절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두 빛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에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는 바로 선 나무와 그 밑에 거꾸로 선 나무의 영상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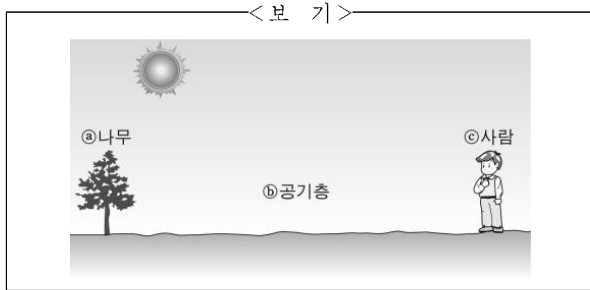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신기루는 일어난다.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 이러한 밀도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 '위 신기루'라고 부른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더운 여름철 오후에는 지표면 온도가 쉽게 높아진다. 이때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차로 달리면, 전방의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차가 접근하면 이는 곧 사라지고 얼마쯤 앞에 물웅덩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아지랑이'도 신기루의 일종이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강하면서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굴절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11.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②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④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⑤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는 뜨거운 사막에서 거꾸로도 보인다.
 ② ㉓는 극지방의 산 정상에 있다면 본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③ ㉓는 ㉕의 온도가 일정하면 ㉔에게 똑바로 보인다.
 ④ ㉓는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
 ⑤ ㉓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되어 ㉔에게 간다.

13. ㉔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은 ㉕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② ㉔은 흐린 날에, ㉕은 맑은 날에 보인다.
 ③ ㉔에서는 상공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④ ㉔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㉕은 사라진다.
 ⑤ ㉔은 물체가 실제보다 위로 보이고, ㉕은 아래로 보인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6-38]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묘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를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

t_1	d_1
t_2	$d_1 + d_2$
$\vdots$	$\vdots$
t_N	$d_1 + d_2 + \dots + d_N$

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N	$d_1 + d_2 + \dots + d_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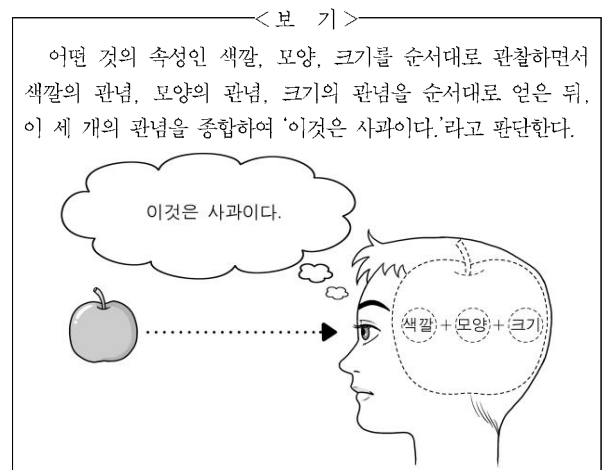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㉔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묘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 에서 t_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14.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15.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16. 윗글의 주제를 함축한 발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A형 16-18]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이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2일 화작 + 문학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000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 있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시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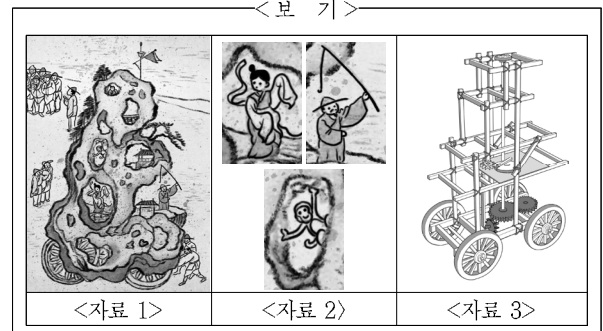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예산대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③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⑤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 ①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②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 ③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고 하셨는데, 그 산은 신선의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④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나요?
- ⑤ 『봉사도』는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대 외에 다른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

[4~5] 다음은 학생이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면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지 편집부 기자 000입니다.
 사서: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사서 △△입니다.
 학생: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사서: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맙네요.
 학생: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사서: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학생: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서: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학생: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서: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 날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A]
 학생: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서: 지역 주민들에게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
 사서: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서: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학생: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이 한국고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서: 고맙습니다.

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위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이다. 면담과 학생 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햇살도서관은 책편지 서비스를 하는 마을 도서관이다.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편지 서비스는 햇살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주고,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 책편지 서비스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서 선생님들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
- ②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책편지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알린다.
- ③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 ④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하여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게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도서관을 장점을 부각한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6-7]

[6~7]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들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가) 학생 1

옥수수 씨앗을 심으러 학교 텃밭에 가는 날이었다. 처음 심어 보는 옥수수라 마음이 설렘다. 그런데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잡초를 뽑고 텃밭의 흙을 정리하느라 흠뻑 땀이 흘렀다.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들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후회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투덜대며 얼굴을 찡그렸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니 텃밭에 오면서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투덜댐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텃밭에 올 때의 마음으로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나) 학생 2

선배와 학교 텃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며 씨이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열흘쯤 지나자 선배의 옥수수는 씨이 올라오는데, 내 옥수수의 씨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여러 번 텃밭에 갔다. 선배는 때가 되면 씨이 돌아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했다. 선배의 말에 나를 되돌아보았다. 왜 그렇게 조급했던 것일까? 나는 평소 무엇인가를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 이런 태도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 가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데,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서운했던 적이 많았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수수 씨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

6. (가)와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타인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 ②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④ ‘학생 1’은 같은 문장을 다시 인용하며, ‘학생 2’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이 이루어진 모습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⑤ ‘학생 1’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 2’는 자신의 태도를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7. <보기>는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 친구들이 쓴 글 읽어 봤어? 소감이 어때?

B : ‘학생 1’, ‘학생 2’ 모두 학교 텃밭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쓴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1’은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학생 2’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어.

A : 나도 그렇게 생각해. ㉠ 그런데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복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B : 그럼. ㉡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빨리 잘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학생 2’의 생각이 이해되더라. 나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A : ㉢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 노력에 따라 복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B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 같은 글을 읽고 이야기해 보니, 서로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 ① ㉠ :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 :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 ③ ㉢ :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 ④ ㉣ : ‘학생 2’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 ‘학생 1’, ‘학생 2’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8~10]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글의 목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기
- 예상 독자: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 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한 후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라고 반응한 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빠질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또한 확증 편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편향된 통념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A]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에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러일으킬 영향을 예상하여 책임감을 가진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일을 막으려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 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

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다.

-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해야겠다.

9. (나)에 제시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갈릴레이는 태양의 흑점 이동과 목성의 위성 존재 등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지동설이 옳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에서는 천동설을 지지했기에 갈릴레이의 거듭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거처 이를 거부하였다. 지동설은 갈릴레이 사후에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 ③ 현상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④ 집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가치관이 다양한 세상에서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 결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①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 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게 어때?
-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가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 ③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문단의 통일성에서 벗어나니까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 ⑤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16]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물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복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자래운: 키운.

* 아무물 만, 니코리스크: 오희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설렁한: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
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
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며
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
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폐를 지어 읊
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B]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흔(月暈)*.

- 박용래, 「월흔(月暈)」 -

* 월흔: 달무리.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2.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시*
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 아라사: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 땀/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
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
/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 이용악, 「우리의 거리」 -

*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
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
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2009학년도 대수능 20-23]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서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 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

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복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올라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1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17.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게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1-33]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영(梅影)이 부드친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진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로다
이윽고 잔 드러 권(勸)하랴게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넌인가 흐노라 <제3수>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솟치 척척(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엇지 감히 뛰리
알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맞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품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1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드러 권하랴'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3일 문법 : 인강 Day

0강. 베이직 트레이닝

1. 품사(~사) : 개체

(1) 체언

- ① 명사 (이름)
- ② 대명사 (대체 or 가리킴)
- ③ 수사 (수량 or 순서)

(2) 관계언

- ① 조사 (관계)

(3) 수식언

- ① 관형사 (N수식 + SOLO불변 + 체언X)
- ② 부사 (주로 V수식 + SOLO불변 + 체언X)

(4) 용언 : 활용

- ① 동사 (동작, 변화O)
- ② 형용사 (상태, 변화X)

(5) 독립언

- ① 감탄사 (독립적 + SOLO불변 + 체언X)

2. 문장성분(~어) : 영역

(1) 주성분

- ① 주어 (서술의 주체 영역)
- ② 서술어 (서술 영역)
- ③ 목적어 (서술의 대상 영역)
- ④ 보어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영역)
(‘되다 or 아니다’의 바로 앞에 ‘이 or 가’ + 주어X)

(2) 부속 성분

- ① 관형어 (체언(N)을 수식하는 영역)
- ② 부사어 (주로 용언(V)를 수식하는 영역)

(3) 독립 성분

- ① 독립어 (독립 영역)

1강. 3패턴 확립

1. 3패턴

- (1) N(h) (격조사는 주로 체언 옆에 붙는다.)
- (2) ○ → N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 (3) △ → V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3패턴 학습

오늘의(N(h)) / 오늘 와라 (△ → V)
(해당 구의 ‘오늘’은 각각 명사와 부사이다.)

먹을 만큼 (○ → N) / 너만큼 (N(h))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너만큼’에서 ‘만큼’은 조사이다.)

4일 문법 : 금주 복습 1 + 독서

[1~3] 다음 문장을 아래와 같이 3패턴을 통해 분석하라.

금지라는 것은 칼날과 비슷하다.
 → 금지라는 것은 ~~칼날~~과 ~~비슷~~하다.

1. 나는 거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2. 아기가 넓은 침대에서 조용히 잔다.

3. 저 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하다.

[4~8] 다음 명제를 읽고 명제의 정오를 판별하라.

4. '너는 너대로 갈 길을 가거라.'에서 '대로'는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라.'의 '대로'와 다른 품사이다. (○/×)

5.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우리 집에 왔다.'에서 '세'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

6. '시기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뿐이다.'에서 '뿐'의 품사는 명사이다. (○/×)

7. '권의같이 똑똑한 친구는 드물다.'의 '같이'는 '상욱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의 '같이'와 달리 부사이다. (○/×)

8. '잘생긴 강사 다섯이 모였다.'의 '다섯'은 '잘생긴 다섯 강사가 모였다.'의 '다섯'과 달리 수사이다. (○/×)

[9~15] 밑줄 친 부분의 문장성분과 품사를 쓰라.

9. 그 사고는 교통 신호를 무시한 운전수의 잘못이 크다.10.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지만 꼭지 시험을 잘 봤다.11. 종이비행기를 하늘에 날리니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다.12. 새 친구를 사귀 후에 동아리 활동은 즐거워졌다.13. 보다 나아진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게.14. 그 소년이 뭇 산을 바라보았다.15.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6~18]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식이 상한 것과 가스가 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탐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감각이다.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을 ‘취기재(臭氣材)’라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취기재의 분자가 코의 내벽에 있는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동물만큼 후각이 예민하지 않다. 물론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개[犬]가 10억 개에 이르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여 인간의 후각이 개의 후각보다 둔한 것이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공기 중에 취기재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취기재의 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탐지역치’라 한다. 탐지 역치는 취기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메탄올보다 박하 냄새를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까닭은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 약 3,500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즉 ㉠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는 있어도 냄새를 풍기는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다.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 한다. 즉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그 냄새가 꽃향기인지 비린내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는 농도가 평균 11% 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10만 개가 넘는다. 하지만 그 취기재가 무엇인지 다 인식해 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쓰일 모든 취기재의 이름을 미리 알려 준 다음, 임의로 선택한 취기재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종류를 맞히게 했다. 이때 실험 참여자가 틀린 답을 하면 그때마다 정정해 주었다. 그 결과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다.

위의 실험은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냄새에 대응되는 명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후각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에 반응한다.
- ② 후각은 유해한 물질을 탐지하는 역할도 한다.
- ③ 박하향의 탐지 역치는 메탄올의 탐지 역치보다 높다.
- ④ 인간은 개[犬]에 비해 적은 수의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 ⑤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반응할 수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그와 관련된 냄새를 통해 환기되는 경우가 있다.
- ② 특정한 냄새와 그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 ③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향상되면 그 취기재의 탐지 역치를 낮출 수 있다.
- ④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취기재의 가짓수보다 많다.
- ⑤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 농도 차이가 평균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다.

18.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5인 경우
- ②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③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35인 경우
- ④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⑤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85인 경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9-21]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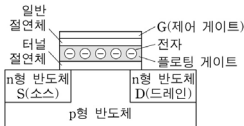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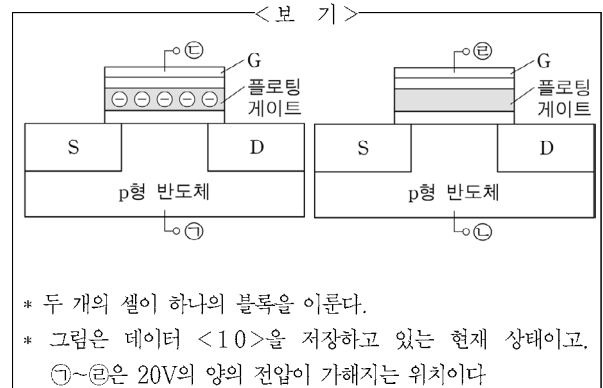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 밑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21. 밑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1단계	2단계
①	㉠	㉣
②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7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①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폼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②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

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 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2.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24. 콰브리치와 콰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25.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묘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26.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摠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5일 금주 복습 2

[2019학년도 고1 6월 학력평가 14]

1.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학생: 선생님, '뽀'는 앞발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선생님: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져요. '나에게는 너뿐이야.'에서처럼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지 뜻의 나타낼 때의 '뽀'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발에 붙여 써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옷을 뽀었다.'에서의 '뽀'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옷을'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발과 띄어 써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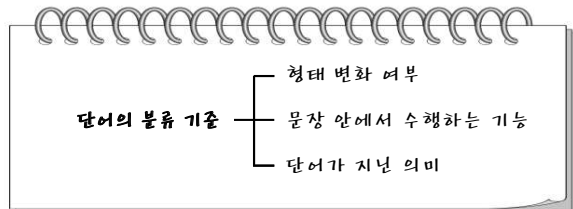
학생님: '뽀'와 같이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예가 더 있나요?

선생님: 대표적인 예로 '대로, 만큼'이 있어요.

- ① **이는데로** 모두 말하**여**라.
- ②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 ③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대로** 되었다.
- ④ 손님들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 ⑤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2017학년도 고1 11월 학력평가 11]

2.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회**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회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2018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13]

3.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활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 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구문 도해'는 문장의 짜임을 그림으로 풀이한 것이다. 국어학자 최현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었다.

이 구문 도해는 '그가 새 옷을 드디어 입었다.'라는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내리그은 세로줄 왼편에는 주성분인 주어(그가), 목적어(옷을), 서술어(입었다)를, 오른편에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새), 부사어(드디어)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었는데, 특히 주어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가로로 쌍줄을 그었다. 또한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그	가	새	드	디	어
가	옷	을	입	었	다

[활동]

다음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시오.

나는 그 책도 샀다.

- ①

나	는	그	책	도	샀	다
---	---	---	---	---	---	---
- ②

나	는	그	책	도	샀	다
---	---	---	---	---	---	---
- ③

나	는	그	책	도	샀	다
---	---	---	---	---	---	---
- ④

나	는	그	책	도	샀	다
---	---	---	---	---	---	---
- ⑤

나	는	그	책	도	샀	다
---	---	---	---	---	---	---

[2014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13]

4.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사어의 종류와 예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에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가 있다. 성분 부사어는 용언, 체언,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

- 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 장미꽃이 **정말** 예쁘다.
- ②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 - **이상하게** 오늘은 운이 좋다.
- ③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그가 **매우** 높이 뛰어올랐다.
- ④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내 차가 **아주** 새 차가 되었다.
- 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다행히**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

[2016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12]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관형사, ㉡대명사, ㉢부사 중에는 '이, 그, 여기, 이리, 그리' 등과 같이 '지시성'을 지닌 단어들이 있다. 이들은 지시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파악해야 한다.

- ㉠ 이 사과를 맛있게 생겼다.
 ㉡ 그 책 좀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 이리 가까이 오게.
 ㉤ 그리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 | | ㉠ | ㉡ | ㉢ |
|---|------|------|------|
| ① | a | b, c | d, e |
| ② | a, b | c | d, e |
| ③ | b, c | d, c | a |
| ④ | b, d | e | a, c |
| ⑤ | c, d | a | b, c |

[2016학년도 고2 6월 학력평가 12]

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그리고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뉜다.

[나]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 ① ㉠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② ㉡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③ ㉢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④ ㉣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⑤ ㉤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2017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13]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

- ① ㉠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② ㉡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③ ㉢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④ ㉣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⑤ ㉤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수능 27-30]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도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쑥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전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떡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 다.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철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처

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나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맡은 바 소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복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11. 독자의 입장에서 ⑥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16]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워오니, 박나비*처럼,
 가너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려다, 나는 중얼거려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지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2.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3.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ㄴ.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ㅅ.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인 일 것 같아.

14.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5.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44~45]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들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이'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니이 돌아오셔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붉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빠른 정답

1	②	2	②	3	⑤	4	⑤	5	①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④		

해설

[1-3] 화법 - 강연

1. ②

정답 분석

강연자는 첫 번째 문단 ‘여러분, 혹시 건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세 번째 문단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듣고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연을 이어 나가고 있다. 즉, 강연자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었고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중과 강연자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강연에서는 ‘전방 인지 능력’, ‘자외선’과 같은 여러 용어를 사용하지만, 청중의 이해를 위해 이 용어들을 정의한 적은 없다.
- ③ 강연에서는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는 배경지식을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확인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강의의 내용을 이어 나가고 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는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은 강연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강연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드러나지 않다. 대신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2. ②

정답 분석

학생은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는 의문의 제기가 맞지만, 강연자의 설득 근거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의문 제기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는 강연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다. 물론, 그 아래에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강연의 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례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험이 강연의 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례가 아니더라도(즉, 비둘기가 야생 조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경험이 강연의 내용과

‘관련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는 강연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 ④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를 통해, 학생은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⑤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강연의 마지막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라고 강연자가 제안하였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3. ⑤

정답 분석

강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자료 1>, ㉡에 <자료 2>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외선 반사 테이프’가 야생 조류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자료 1>을 ㉠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 자료는 ‘야생 조류의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② <자료 1>이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는’ 자료인 것은 맞으나, 이를 ㉡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에서는 ‘사람과 야생 조류의 색 인식 영역’에 대한 자료가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는 ‘자외선 반사 테이프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은’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1>과 <자료 2> 모두 이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자료 1>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잘 드러낸 자료는 <자료 2>가 아닌 <자료 1>입니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을 인식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이지, 유리창 충돌 원인과는 무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7] 화작 융합 - 토의 & 소개하는 글쓰기

4. ⑤

정답 분석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언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에서 ‘학생 1’이 아이디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 1’이 제기한 비판(‘유화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음)에 대한 대안을 ‘학생 3’이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학생 2’는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 △△거리, □□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3'이 소개한 반딧불이 축제는, '맛나거리'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학생 2'의 발언에 대한 대안에 해당한다.
- ③ 모둠 과제 안내장에는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의 포함'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 도시만의' 특색'을 보이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 2'가 조건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은 '우화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①

정답 분석

㉠은 '평범한 글이 될 것 같다'는 문제 상황 하에,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였으며, ㉠은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이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을 통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과 ㉡ 모두 발화자 '개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과 ㉡ 모두 상대방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다. ㉠의 경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⑤

정답 분석

[B]에서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C]에 '다양한 행사'가 제시되지는 않는다.
- ② [B]에 은행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C]에 언급된 은행나무는 '산할머니'와 관련이 없다.
- ③ [C]에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하여 온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 ④ [B]의 논의를 보면, '바람맞이 언덕'은 사진 찍기에 좋기 때문에 소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준다 보기도 어려우며,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 역시 '바람맞이 언덕'과 무관하다.

7. ④

조건 분석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이 모두 드러나야 하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문구에 포함되어야 한

다. 또한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분석

'산할머니 전설'을 제시하여 전통 분야 특색을, '반딧불 및 '청정한 사랑시'를 제시하여 자연 분야 특색을,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를 제시하여 예술 분야 특색을 드러내었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좋은 점이 드러나 있으며,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을 활용하여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답 분석

- ① 사랑시의 예술 분야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지 않다.
- ③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지 않다.
- ⑤ 사랑시의 전통 분야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8-10] 작문 -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

8. ⑤

정답 분석

㉠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유형'을 글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을 나열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쓰였어야 할 것이다. 중간에 '다큐멘터리'가 제시되지만, 글에서 '다큐멘터리'와 '사극'은 엄연히 구분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②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③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④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9. ②

정답 분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와 '사극'을 둘 다 제시하여 논지가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인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 강조되도록 하였다.

오답 분석

- ①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는다.
- ③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글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역사와 사극의 긍정적 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맞으나,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의 본질이 실제 역사를 수용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⑤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는다.

10. ③

정답 분석

〈보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이를 연결해 나갈 때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사극이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보기〉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의 균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보기〉에서는 시청자의 공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⑤ 〈보기〉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의 균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11~13] 독서 - 과학, ‘신기루’

11. ②

출제 의도 출제 의도 세부 정부와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서 다루어지는지 확인한다. 1문단은 신기루 현상의 원리, 2문단은 ‘아래 신기루’ 현상, 3문단은 ‘위 신기루’ 현상, 4문단은 그 외의 신기루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분석

[1문단 2문장] 조건/신기루는 대상이 필요한가?

신기루는 원래의 대상이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것으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 2문장] 범주/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나는가?
신기루는 공기층의 온도 차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므로, ‘만’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1문단 3문장] 조건, 범주/빛은 어떠한 조건에서 굴절하는가?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 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즉, 밀도의 크고 작음이 아닌 ‘차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므로, 방향을 한정할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 ④ [1문단 2~5문장] 조건/공기층의 밀도 차이는 신기루의 필수 조건인가?
공기층의 온도가 다르면 밀도 차이로 인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기루가 발생하므로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다면 신기루는 생길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 5문장] 조건/물이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인가?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다른 곳에 위치한 물웅덩이가 도로 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로 인해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은 온도차이일 뿐,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2. ④

출제 의도 〈보기〉의 상황에 본문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에서 나온 빛이 ㉡를 거치며 ㉢에게 도달할 때, 조건에 따라 빛이 ㉡를 거치며 어떻게 굴절하는지와 ㉢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사막과 같이 지표면이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온도가 높은(밀도가 작은) 경우, 빛은 위로 굴절하여 바로 선 대상과 그 밑에 거꾸로 선 대상의 영상이 동시에 보인다. 반대로 극지방과 같이 지표면이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온도가 낮은(밀도가 큰) 경우, 빛은 아래로 굴절해 대상이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답 분석

[1문단 3문장, 2문단 1문장] 축약/온도와 밀도의 관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빛을 받아 가열되는데,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으므로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2문단 3~8문장] 축약/사막에서 대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뜨거운 사막에서는 대상을 멀리서 볼 때 바로 선 대상과 그 밑에 거꾸로 선 대상의 영상이 동시에 보인다. 따라서 ㉠은 뜨거운 사막에서 거꾸로 ‘도’ 보이므로 적절하다.
- ② [3문단 2~5문장] 축약/극지방에서 대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빛이 아래로 굴절하여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가 산 정상에 있다면 본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③ [1문단 2~3문장] 조건/신기루를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신기루는 공기층의 밀도 차이로 인해 빛이 굴절되어 발생한다. 온도가 일정하면 밀도 차이가 없으므로 신기루가 발생하지 않아 ㉠은 ㉢에게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⑤ [1문단 2~3문장] 조건/빛은 어떠한 조건에서 굴절하는가?
빛을 굴절 시키는 조건은 공기층의 ‘밀도 차이’이다. 온도 차이가 있다면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 빛은 굴절되어 ㉢에게 가므로 적절하다.

13. ①

출제 의도 두 가지 종류의 신기루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은 지표면의 공기가 그 상공의 공기보다 찬 추운 지방에서 발생하는 신기루이고, ㉡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가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신기루이다.

정답 분석

[3문단 2문장] 조건/신기루의 지속시간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이렇게 매우 추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은 ㉡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논점 일탈]

날씨에 따라 공기층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 4문장]방향 변환

㉠에서는 상공이 아닌 지표면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 2~4문장]축약[조건/신기루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

신기루는 빛이 공기층을 통과하며 굴절하여 발생하므로,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면 빛은 굴절하기 전 우리 눈에 들어오므로 ㉠과 ㉡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 8문장]변화와 불변

㉢의 경우 물체가 보이는 위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16] 독서 - 인문,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

14. ④

출제 의도 글의 중심적인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중심 화제를 파악할 때는 지문에서 던지는 질문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경우에는 1문단에서 제기된 질문이 4문단에서 답이 되고 2~3문단이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지문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 선지와 지문의 내용을 이어보자.

정답 분석

[2문단 2~3문장, 4문단 1문장]어휘 변환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하는 과정을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한 뒤, 이러한 사고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4문단 2문장]첨가

지문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각과 사고의 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끊임없는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사고의 한계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 1~3문장]

이 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논점 일탈]

이 글에서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논점 일탈]

이 글에서 인간의 의식 발달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는 찾아볼 수 없다.

15. ⑤

출제 의도 <보기>의 상황에 본문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사물은 관찰을 통해 인지하며, 그것은 관념이 된다. 하지만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 <보기>에서 '색깔, 모양, 크기'는 사물에 해당하며, '색깔-모양, 크기의 관념'은 관념에 해당한다. 이 문맥적 연결을 통해 풀이해야 한다.

정답 분석

[3문단 3문장]

인식된 관념은 시간적 제약 속에 있지 않아 불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

색깔을 관찰하는 것이 크기를 관찰하는 것과 그에 따라 관념을 획득하는 것에 순서상 앞서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는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모양과 크기의 관념을 얻기 전, 색깔을 관찰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라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적절하다.

③ [3문단 3~4문장]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불변하지만, 사물이 갖는 속성으로서의 색깔은 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 2문장]

특정 시점에서 이전 시점에 관찰한 것은 기억 속에 관념으로 남는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①

출제 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선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강의실' 등의 어휘가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물', '관념' 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선지와 주제의 정합성을 따져보자.

정답 분석

[3문단 4문장, 4문단 2~3문장]추론

이 글의 주제는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이다.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 관찰한 관념이 기억에 남은 것인데, 관념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 자료들은 그 시점에서의 사물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인 '강의실'이 어제와 오늘 같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사물의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에 대한 운을 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논점 일탈]

글의 주제인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논점 일탈]

글의 주제인 지식의 형성 과정과는 연관성이 깊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논점 일탈]

글의 주제인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논점 일탈]

글의 주제인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일 화작 + 독서

[17-19] 독서 - 과학, '분광과 키르히호프의 분광 분석법'

■ 문제에서 얻어 가기(SKIMMING POINT)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 ㉠은 키르히호프라는 인물이다. 키르히호프가 발견한 것, 해낸 것 등을 주시하고 키르히호프의 업적과 키르히호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업적을 구분하며 읽자.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 위 문제는 겹쳐졌는지, 겹쳐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선택지를 판별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겹쳐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집중하자.

1문단

¹⁾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²⁾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³⁾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⁴⁾이에 물리학자 ㉠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1) '세기', '구체적 연도'가 나오면 늘 주목하자!

세기, 구체적 연도는 통시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 지문에서는 단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체적 연도를 기재하였다.)

2) 분젠의 업적.

16번의 발문을 통해 키르히호프의 업적과 키르히호프 외, 다른 사람의 업적을 구분하며 읽자고 하였으니, 체크하며 읽자.

※ 역접 접속사의 역할(▷역접 구)

그러나, 그런데, 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등/~에 비해, ~라, ~에 반해, ~와 달리

1. 소재 대비

2. 속성 대비

3. 전개 흐름 전환

- ㉠ 소재 도출, 개념 도출
- ㉡ 문제점 도출
- ㉢ 문장 내 흐름 및 방향성 전환

3) '하지만' 역접 접속사를 활용하여

전개 흐름 전환 & ㉡ 문제점 도출

문제점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해결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자!

물론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점&한계로 마무리되는 지문도 존재. (ex.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 의 사고의 한계 /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 통제의 딜레마)

4)-1 해결 방안이 바로 등장하였네요!!

해결 방안: 키르히호프가 제안한 프리즘을 통한 분석, '분광 분석법'

4)-2 문장을 통해 어휘 의미 파악하기.

분광 분석법: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석 방법

4)-3 키르히호프가 무엇을 하였는지 체크하며 읽어야 한다.

- ①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
- ② 분젠과 협력하여 분광 분석법을 창안

◎ 독해 포인트 1문단 마지막 문장

1. 글의 방향 파악하기

1문단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분광 분석법을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창안하였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분광 분석법 창안'이 왜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지 즉 이유에 대해 설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광 분석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후 내용에서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 분광 분석법의 구체적 설명 등이 등장할 것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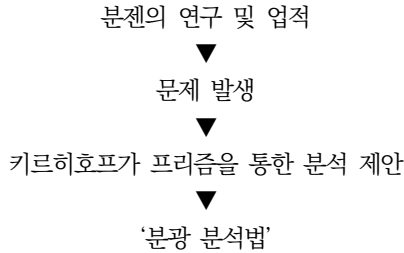
2. 묶어 생각하기

[프리즘 - 불꽃의 색 분리 - 분광 분석법]

분광 분석법은 '프리즘'과 '불꽃의 색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 세 소재의 관련성을 알고 읽느냐 모르고 읽느냐는 내용 이해에 큰 차이를 줄 것이다. 따라서 세 소재를 묶어 읽는 것이 핵심이다.

◆ 1문단 요약



◆ 1문단의 특징&포인트

1. 문제 발생, 문제 해결

문제: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해결: 키르히호프가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
'분광 분석법' 창안

2. 전개 방향 파악하기

분광 분석법 -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 ▶ 이후 구체화될 것

2문단

¹⁾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²⁾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³⁾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⁴⁾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띠띠띠띠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 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⁵⁾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1 ★전개 흐름 잡기

추론 포인트 2문단에서 프리즘을 통한 분석 실험에 대해 설명 시작! 이에 따라 2문단은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문단임을 알 수 있다. 분광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이후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가 밝혀지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을 예상하자!

1)-2 실험 방식(과정) 등장

①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②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③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

1)-3 묶어 생각하기

[프리즘 - 불꽃의 색 분리 - 분광 분석법]

2) 양적 관계 등장

⇒ 양적 관계는 문제와 집결될 확률이 높다!
(17번의 ②선지)

파장↓ → 굴절하는 각↑ (= 파장↑ → 굴절하는 각↓)

갑자기 양적 관계 정보 문장이 삽입되었다. 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체크만 해놓고 앞뒤 문장을 이어서 보아야 한다.**

3) 계속적으로 문장 이어서 보고, 과정을 체크하자

이 방법 = 2문단 1문장의 실험 방식을 통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냄

4)-1 긴 문장은 차근차근 독해하고, **불변 요소**를 체크하자.
⇒ 그들은 **밝은 선의 위치는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4)-2 지시어 놓치지 않기 (문장 이어서 보기)
이 과정 =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는 과정 (앞 문장)

4)-3 '특정한 금속'이 무엇인지 설명할 확률이 높다. (작은 띄임)
[밝은 선 - 특정한 금속] 묶어서 생각하기.

(18번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다면,
나트륨이나 리튬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 분광 분석법에 대한 구체화 내용 및 탄생 과정 마무리.

문장 속 대비 코드 파악하기, 문장을 통해 정보 파악하기
⇒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 =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방법
↔ 분광 분석법

분광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므로, 2문단에서는 분광 분석법의 구체적 내용 및 탄생 과정이 서술되었다. 하지만 아직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1문단의 띄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 2문단 요약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

◆ 2문단의 특징&포인트

1. 정보를 제공하는 문단 & 1문단 떡밥 주시하기.

2문단은 핵심 소재 '분광 분석법'에 대한 탄생 과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단이다.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지시어 주목, 과정류 서술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이 나온다.

실험 과정을 소개하고 화합물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등장한다. 앞의 과정을 통틀어 말하는 지시어가 등장하므로 지시어를 놓치지 않고 과정을 체크하자.

3. 양적 관계

파장↓ → 굴절하는 각↑ (= 파장↑ → 굴절하는 각↓)

3문단

¹⁾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²⁾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³⁾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⁴⁾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⁵⁾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⁶⁾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1)-1 ★ 1문단 떡밥의 해결 조짐!

분광 분석법(=이 방법)을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키르히호프가 천문학 분야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목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1)-2 키르히호프가 무엇을 하였는지 체크하며 읽기

⇒ 분광 분석법을 천문학 분야로 확장

2-1) 2문단 4문장에 있는 작은 떡밥 해결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

⇒ 특정한 금속 ⊃ 나트륨

(18번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다면, 미리 알 수 있다.)

2-2) 천문학 분야에서 분광 분석법의 활용 제시

⇒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

계속해서 글의 논지와 이어서 독해하자.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는 '글의 논지'와 연결하며 독해할 것!

2-3) 연관성에 집중하자.

①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

이 둘의 비교로 인해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둘의 연관성에 집중해야 한다.

(18번 문제를 먼저 읽고 왔다면 지금 내용에서 집중해야 한다.)

4-3) 키르히호프 외 다른 사람의 업적 체크하기

프라운호퍼: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들을 발견 ▶ 16번 ②선지와 집결

3) ★ 전제와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 전제: 겹쳐지는 것을 확인

결과: ~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겹쳐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기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

해석 대상: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 프라운호퍼의 D선

해석 대상의 검은 선이 기준 대상의 밝은 선에 겹쳐짐에 따라, D선이 태양 대기 중에 있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한다. 이를 통해, 두 선이 겹치면 태양에 나트륨(=기준 대상의 원소)이 존재하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18번 문제 풀이와 집결된다.

역으로 겹쳐지지 않으면 태양에 기준 대상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겹쳐지면 ⇒ '기준 대상'의 원소가 태양에 존재.

(Why? 태양에 존재하는 ('기준 대상'과 동일한) 원소 때문에 '해석 대상'이 생기므로.)

4) 앞의 문장에서 제시된 '해석'의 이유 및 원리를 설명

◎ 독해 포인트

글의 흐름 파악하기 (떡밥 회수 및 이해 순서 중심)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논지) <

1일 화작 + 독서

천문학 분야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 > 세부 내용(원리)

⇒ 이 문장을 독해할 때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은 분광 분석법이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된 내용을 설명하는 발판이며,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된 내용은 이 방법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발판이다.

5, 6) 보조사 '도' 주목

D선 이외에 다른 검은 선 또한 D선과 같은 원리임을 말하고 있다.

즉 대기 중의 특정 원소가 빛을 흡수함에 따라 그 선들이 나타난다는 것 +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만들어진 검은 선의 위치는 동일한 특정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 3문단 요약

천문학 분야로까지의 확장. 어떻게?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



원리: 'D선' = 'D선 이외'

◆ 3문단의 특징&포인트

1. 본격적 1문단 떡밥 해결의 조짐.

2문단에서는 분광 분석법에 대한 구체적 서술과 탄생 과정이 소개되었고, 3문단부터는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2. 떡밥 회수 및 이해 순서 존재!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논지) <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 < 세부 내용(원리)

3. 전제와 결과 파악하기

전제: 겹쳐지는 것을 확인

결과: ~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겹쳐지면 ⇒ '기준 대상'의 원소가 태양에 존재.

(Why? 태양에 존재하는 ('기준 대상'과 동일한) 원소 때문에 '해석 대상'이 생기므로.)

4문단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²⁾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1 내용적 대응, 구체화

3문단 1문장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1)-2 키르히호프가 무엇을 하였는지 체크하며 읽기

원리의 적용을 통해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을 밝힘,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 적용 ▶ 16번의 ⑤선지

2) 큰 떡밥 회수

분광 분석법 창안이 왜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지 즉 이유에 대해 설명 완료!

◆ 4문단 요약

천문학 분야로까지의 확장 내용 구체화,



분광 분석법의 공헌 (1문단 핵심 떡밥 회수)

◆ 4문단의 특징&포인트

1. 떡밥 회수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 4문단 1문장을 통해 구체화!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 4문단 2문장 '공헌'

■ 핵심 특징 & 놓치지 말아야 할 점

1. 1문단을 통해 글의 방향 잡기

① 분광 분석법에 대한 정보, 탄생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 예측하기

⇒ 1문단에서는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분광 분석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후 내용(2문단)에서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 분광 분석법에 대한 정보가 설명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떡밥 - 떡밥 수거

떡밥: 분광 분석법 창안 -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 위 지문은 1문단에서 던져 놓은 떡밥을 마지막까지 수거해나가는 지문이다. 분광 분석법이 '왜?'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했다.

2. 과정류 서술 & 떡밥 회수 및 이해 순서 존재

㉠ 2문단 - 과정류 서술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이 나온다.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 떡밥 회수 및 이해 순서 존재

제시 순서: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 (1문단)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3문단)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 (3문단)



세부 내용(원리)

이해 순서:

세부 내용(원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 (3문단)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3문단)



분광 분석법 창안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 (1문단)

제시 순서는 위와 같지만 이해 순서는 역임을 파악해야 한다. 즉 글의 **이해 관계 및 순서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3문단에서는 원리를 통해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은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된 내용을 설명하는 발판이 된다. 더 나아가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된 내용은 분광 분석법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발판이 된다.

3. 인물 - 업적 파악하기

㉠ 분젠

㉡ 키르히 호프

㉢ 프라운호퍼

세 인물의 업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16번 문제

4. 묶어서 독해하기.

㉠ 1문단 정보

[프리즘 - 불꽃의 색 분리 - 분광 분석법]

㉡ 2문단 정보

[특정한 금속 - 밝은 선]

㉢ 3문단

[키르히호퍼 - 분광 분석법 - 천문학 분야]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 -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

[태양 대기 중 특정 원소 - 빛 흡수]

제시된 내용에서 소재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독해력 향상과 빠른 이해력에 도움이 된다.

5. 양적 관계, 전제-결과

㉠ 양적 관계

파장↓ → 굴절하는 각↑ (= 파장↑ → 굴절하는 각↓)

㉡ 전제 - 결과

전제: 겹쳐지는 것을 확인

결과: ~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겹쳐지면 ⇒ '기준 대상'의 원소가 태양에 존재.

(Why? 태양에 존재하는 '기준 대상'과 동일한 원소 때문에 '해석 대상'이 생기므로.)

■ 최종적 글의 견해

이 글은 1문단에서 글의 전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분광 분석법 창안이 왜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인가에 대해 이후 설명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hy?'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2문단의 분광 분석법의 탄생 과정, 3문단에서 제시한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 3문단 속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과 원리 등의 모든 내용이 분광 분석법이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임을 부각하는 내용임을 파악해야 한다.

17. ⑤

출제 의도 본문의 내용 중 '키르히호프'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유리한 문항이다. 본문을 읽으며 해당 내용이 키르히호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과학자들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한다.

정답 분석

[3문단 전제, 4문단 1문장][축약][어휘 변환]

'태양 대기 중에 철과 헬륨이 존재한다'라고 밝혀낸 것을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변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2문단 5문장][대비]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이라는 어구를 통해 이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분석 화학 방법의 확립은 ㉠의 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 2문장][주어 변환]

검은 선은 '프라운호퍼'의 발견이므로 ㉠의 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 1문장, 4문장][축약]

'분젠'이 이미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의 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 2문장][주어 변환]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이는 ㉠의 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18. ③

출제 의도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확인한다.

정답 분석

[2문단 4문장][어휘 변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라는 것을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변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2문단 6문장][존재 유무]

분광분석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원소인 루비듐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루비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 2문장][양적 관계]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 3문장, 4문단 1문장][축약][선후 도치]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는 것을 통해 나트륨의 존재 발견 이후에 철의 존재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 2~3문장][축약][존재 유무]

분젠은 '버너 불꽃의 색깔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했지만, 이는 '불꽃의 색깔이 겹치는 경우 분간이 어렵다'라는 한계를 막지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④

출제 의도 <보기>의 상황에 본문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4문단 1문장에 따르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을 이용한 3문단의 원리가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다.

적용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이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항성 β 의 대기 중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만, 항성 α 의 대기 중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D선을 통해 태양의 대기 중에는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이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항성 α 의 대기 중에는 리튬이 존재하지만, 항성 β 의 대기 중에는 리튬이 존재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답 분석

[3문단 3~4문장][축약][유무 변환]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진다. [길잡이]를 통해 항성 β 의 대기 중에는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3문단 3~4문장][축약]

항성 α 의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았으므로 나트륨이 없는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3문단 6문장][동일 맥락]

길잡이를 통해 항성 α 의 대기 중에는 리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문단 6문장의 '나트륨'의 경우가 '리튬'의 경우로 변환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길잡이, 3문단 6문장][축약][어휘 변환]

⑤ [길잡이, 3문단 6문장][축약][어휘 변환]

나트륨과 같이 대기 중의 특정 원소가 해당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생긴 검은 선들이 존재하므로 적절하다.

빠른 정답

1	③	2	⑤	3	①	4	④	5	④
6	②	7	④	8	④	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③	14	①	15	③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④
21	⑤								

해설

[1-3] 화법 - 발표

1. ③

정답 분석

화법의 '발표·담화' 지문에 있어서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은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 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같은 환기 표현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유하는 경험과 환기 표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4문단에서 청중에게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임을 청중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관심을 유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화법의 '발표·담화' 지문에 있어서 정보의 출처는 '조선 왕궁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2018학년도 수능)과 같이, 인용 출처('조선 왕궁 궁중 음식')와 인용 표지어(『에 따르면』)를 통해 제시된다. 2문단에서 『광해군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다'는 정보의 출처(『광해군일기』)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화법의 '발표·담화' 지문에 있어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은 '이 술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처럼 발표자의 질문(『어떻게 될까요?』)과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발표자의 모습(청중의 대답을 듣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드러난다. 발표문 마지막 문단의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에서 질문과 반응 확인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분도~좋겠네.'를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⑤

정답 분석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발표에서 활용한 자료와 자료를

통한 내용 구성을 동시에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특정 자료가 발표의 어느 시점에서 사용되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묻고 있다.

발표문의 2, 3, 4문단을 통해 <자료 1>은 예산대의 전체 모습, <자료 2>는 예산대의 인형들만 확대한 그림, <자료 3>은 예산대 인형을 움직이는 수레바퀴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의 판단이 까다로웠으나 이는 <자료 2>가 인형들만 확대한 그림임을 파악한다면 <자료 1>이 예산대 전체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3>은 각 ㉠~㉣에 대응되며 <자료 1>은 예산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자료 2>는 개별 인형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3>은 예산대의 인형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사용되었다. ⑤는 <자료 3>을 ㉣에 넣고 그를 통한 내용 구성을 제대로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자료 1>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것이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발표문에서 예산대의 제작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자료 3>은 ㉣에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자료 2>가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를 통해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발표문에서 예산대의 유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자료 2>가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활용된 것은 적절하지만, ㉢에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①

정답 분석

주어진 청중의 질문에서 '인물과 동물', '나타낸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발표문에서 '인물과 동물'과 관련된 인공물('나타낸 것')은 '인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들'의 의미를 물어본 ①이 제시된 답변을 이끌어낼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② 문항의 발문은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발표문은 '상징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징적 의미'를 묻은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문항의 발문은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발표문은 '신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선'을 묻은 ③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주어진 답변에서 '이상향 속의 존재들'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현실 속 사람의 문제를 묻은 ④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람이 직접

- 공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 ⑤ 주어진 답변에서 '『봉사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봉사도』'를 묻은 ⑤는 적절하지 않다.

[4-5] 화작 융합 - 면담 & 소개하는 글쓰기

4. ④

정답 분석

[A]에서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는 학생의 질문은 무엇을 묻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따라서 사서는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고 물어보며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B]에서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라는 사서의 대답에 학생은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더 알고 싶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라고 추가 질문을 건넸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A]에서 사서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질문을 다시 했고, 이에 학생은 자신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재질문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기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건넨 것이 아니기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B]에서 학생이 한 질문과 사서가 대답한 답변은 모두 교지에 실을 글, 즉 '햇살도서관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면담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학생이 추가로 질문한 내용 역시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을 알기 위해서이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기보다는, 다소 모호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다시 질문을 하였다. [B]에서 사서는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의도를 갖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질문 중 특정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5. ④

정답 분석

면담에서 학생은 책편지 서비스의 신청 방법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 내용은 학생의 글에 실현되어 있지 않다. 학생의 글에는 책편지 서비스의 의미, 반응, 기대 효과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책편지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신청서를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통해 독자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단순히 '한국고 학생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이나 교육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과 같이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이들이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면담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를 통해, 부제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⑤ 면담에서 학생은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썼다는 것을 사서에게 언급했으며, 이 내용은 학생의 글 중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의 장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 선지는 적절하다.

[6-7] 화작 융합 - 성찰하는 글쓰기 & 대화

6. ②

정답 분석

'학생 1'의 글에서는 옥수수 씨앗을 심는 과정만 드러날 뿐, 옥수수가 자라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생 2'의 글에서 학생이 발견한 의미는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기'이며, 이는 옥수수의 싹이 올라오는 그 자체보다는 싹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발견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 의미는 옥수수가 자라는 모습 자체에서 도출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학생 1'은 선생님의 조언을 계기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와 같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다. '학생 2'는 선배의 조언을 계기로, '나는 평소 무엇인가를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와 같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학생 1'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와 같이, '학생 2'는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④ '학생 1'은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으며, '학생 2'는 자신이 원하던 옥수수 싹이 올라온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⑤ '학생 1'은 설렘에서 짜증스러움으로 바뀐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고, '학생 2'는 평소 스스로 느꼈던 조급함을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 지어 글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7. ④

정답 분석

글에서 드러난 '학생 2'의 생각은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보기>에 드러난 A의 생각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입니다. ㉔의 '노력에 따라 빠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은 A의 생각을 강화하는 근거일 뿐, '학생 2'와 A가 가진 생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학생 2'의 글은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는 이와 같은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B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B는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의 기억을 토대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 2'의 글에 '생각이 이해되더라'라는 말과 같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A는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뒤에는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⑤ B의 첫 번째 발화를 보고 알 수 있듯 A와 B는 모두 '학생 1', '학생 2'의 글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B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서로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며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8-10] 작문 - 주장하는 글쓰기

8. ④

정답 분석

(나)의 1문단을 통해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를 들고,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증 편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나)에 확증 편향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는 확증 편향의 여러 문제점과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만이 제시되어 있어, 확증 편향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일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 ③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보완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사회적 쟁점을 두고 벌어진 확증 편향의 사례(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는 제시되어 있으나,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④

정답 분석

<보기>에 제시된 상황은 다른 사람의 과학계 내의 집단 의사

결정이 있었으나, 소수(갈릴레이)의 적절한 이론(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수가 지지하는 기존의 부적절한 이론(천동설)의 권위가 지켜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집단이 편향되어 있다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서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한 ④가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보기>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의 다섯 번째 문단을 재진술한 내용으로,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는 일관된 자아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③

정답 분석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수정 전후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선지를 보기 전에 초고와 수정한 원고를 비교해야 한다.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보기>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삭제되었으며, <보기>의 첫 번째 문장 앞부분에 문단을 도입하는 표현('따라서 ~ 먼저')이 추가되었으며, 첫 번째 문장 뒤에 그 근거('왜냐하면 ~ 때문이다.')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근거 뒤에 '찰스 다윈'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이때 ③에서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첫 번째 문장의 내용과 결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문장 앞부분에 문단 도입 표현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보기>의 첫 번째 문장 앞부분에 문단을 도입하는 표현('따라서 ~ 먼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첫 번째 문장 뒤에 그 근거('왜냐하면 ~ 때문이다.')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이 삭제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보기>와 [A]를 비교하였을 때, '찰스 다윈'의 사례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1-14] 문학 - 현대시

지문 해설

(가)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던 밤을 떠올리고 있다. <보기>의 작품들을 참고할 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리운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낯선 땅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화자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회고하면서 그 최후에 대한 참담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풀벌레 소리'는 울음소리라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비극성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나) 박용래, 「월혼」

화자는 '갯 속'같이 외부로부터 동떨어진 마을, 그 중에서도 후미진 외딴집에 사는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움에 짊어진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새들의 온기마저 느끼고 싶어한다. 고요함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해 마치 통곡하듯 노인의 고독감을 대변한다. 화자는 달무리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시상을 마무리하여 노인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11. ②

기준 세우기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눈 뒤, 먼저 표현 기법에 따라 정오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대중E-sense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 표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과 공감각 혹은 복합 감각적 표현을 말한다. 이때 어떤 사물을 하나 시에 등장시키더라도 이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이 없는 시는 사실상 거의 없다.

장면을 초점화 했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보고 전달하듯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구체적 장면보다는 관념적인, 사색에 집중한 시를 떠올려보는 것이 좋겠다.

ex)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2020수능특강

(가)는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당시의 장면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외딴집의 노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화자는 그 노인이 홀로 깨어 '무릎 깔기'도 하고, 짚단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우의적이란 어떤 대상을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 돌려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실령 작가가 어떤 상황을 그대로 옮겨 썼다고 말하더라도 문학의 장르적 특성상 독자는 이를 어떠한 상징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우의적 표현은 어떤 문학 작품이라도 없다고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우의적 표현의 사용 여부보다는 '무엇'을 '어떤 것'에 빗대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가)는 대체로 아버지가 겪은 삶을 말하고 있으며, 화자는 그러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 화자 자신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체험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대중E-sense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어조는 사용된 어미와 그 내용 모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미를 먼저 확인한 뒤 내용면에서도 적절한지를 확인하자.

담담한 어조는 '-나다, -ㅁ다'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거나 차분하고 정

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들을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상황에 따른 정서와 태도로 구분해야하는데, 매우 슬픈 상황에 빠졌는데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시키지 않는 등의 모습(ex: 정지용, 「유리창」)도 해당된다. 절대적인 기준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는지'에 집중하자.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 장면을 회상하면서 슬픔 그 자체를 표현하지 않고 '울음을 다아 울었고'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경우 화자가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바라보고 있지만 화자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노인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노인과의 합일을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대중E-sense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문학에서 성찰은 자아가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 '시'가 세계의 자아화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는 성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시적 대상이 화자 자신인지를 근거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가)에서는 2연을 통해 아버지의 과거 삶을 돌아보고 있다. 이로부터 현실의 자신의 삶으로 대상을 옮기지는 않았다. 또한 (나)에서는 '외딴집'과 그 안의 '노인'이 시적 대상으로, 화자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았다.

해설자 TMI

참고로 '성찰'과 '성찰적 태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에서 '성찰적 태도'는 자신의 부족함, 잘못 등을 인식하는 '반성'과 같이 비교적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대중E-sense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화자가 과거에 겪은 일이나 본 장면을 묘사할 경우 이를 회상이라 한다. '-었, -던'과 같은 과거형 시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용상으로도 과거 화자의 경험이 맞는지를 확인하자.

(가)는 시 전체적으로 선어말어미 '-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과거 아버지의 임종 당시를 회상하고 있으며, 또한 2연에서 자신이 바라본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타지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삶의 애환을 그려낸 것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현재형 어미만을 활용하고 있어 과거 이야기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⑤

기준 세우기 <보기>는 (가)의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보기>의 이야기가 (가)의 어떤 구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정답 분석

화자는 밑줄표이었던 '아버지'에게 어렸던 '우리'가 '짐작'처럼 성가신 존재였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자신들

을 ‘애써 자라온’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는 표현이지, 이에 대한 자책은 드러나지 않는다.

해설자 TMI

밀수꾼 생활이 ‘아버지’의 ‘젊어서 한창’ 때였음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판단해도 좋다.

오답 분석

- ① <보기>를 통해 ‘아버지’가 가난했으며, 밀수꾼으로 눈보라에 숨어 러시아를 오가며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에 그려진 임종 장면을 보면 타향에서 침상도 없이 초라하고 빈한(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기>를 통해 (가)의 ‘아버지’가 ‘노령을 다니’던 것이 ‘밀수’를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들과 딸’을 키우기 위해 밀수까지 했다는 의미로 적절하다.
- ③ ‘아무도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을 이제 ‘완전히 잊었다’는 것은 <보기>의 첫 작품의 ‘아라사를 못 잊어’와 연결된다. 죽어서야 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이 러시아의 지명들은 젊을 때 고생했던 곳이기도 하면서 그림자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한다.
- ④ 아버지가 러시아를 잊지 못하고 외로워했다는 것은 ‘다시 아라사로 가 외할머니, 큰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를 (가)의 ‘피지 못한 꿈’이라고 본다면, ‘아버지’가 결국 죽을 때 까지 다시 아라사로 돌아가 ‘외할머니 큰아버지’를 보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3. ③

기준 세우기 사실상 표현상의 특징 문제와 같다.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끊어서 확인하자.

정답 분석

대중E-sense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목가적 분위기는 농촌, 시골, 전원과 같은 향토적 배경에서 소를 키우는 등 여유롭고 한기로운 분위기를 말한다.

대화적 구성은 화자와 청자가 등장해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구조로, 말을 건네는 방식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대화의 형식, 대화의 구조와 같은 말로 이해하자.

외판 마을이라는 것과 ‘짚단’ 같은 단어를 통해 시골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맞으나 ‘노인’의 외로움이 그 주된 정서라는 점에서 평화적,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보기는 어렵다. 또한 등장하는 인물은 ‘노인’ 하나뿐이며 발화도 나타나지 않아 대화적 구성이라 볼 수도 없다.

최근에는 대화체, 대화적 구성 등의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굳이 구분하려 애를 쓸 필요는 없다. 한번 느낌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따뜻한 시선은 화자가 대상의 상황 또는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과의 심적 거리감이 가깝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화자는 노인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며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것이라 느낀다. 이를 통해 화자가 노인의 외로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겨울 귀뚜라미’가 ‘벽이 무너지라고’ 운다는 데에서 화자가 노인의 감정을 귀뚜라미 소리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노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설자 TMI

‘노인’이 화자가 아니며, ‘노인’은 스스로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추자.

- ② ‘침침산중’에도 없은 정도로 동떨어진 마을, 그 속에서도 후미진 외판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④

대중E-sense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시상의 집약은 시적 정서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적 긴장감이 나 시적 여운과 더불어 시의 함축성에 따라 사실상 당연한 설명으로 봐도 무방하다. (11~④ 해설을 참고해도 좋다.)

화자는 노인의 침묵에서 외로움을 읽어내고, 이를 반영해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월훈’이라는 시어로 시를 끝맺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상황과 정서를 모두 ‘달무리’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축은 독자가 이 안에 함축된 시상을 직접 해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불러일으킨다.

⑤

대중E-sense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연쇄는 앞 구절의 끝말을 다음 구절의 첫말로 받아가며 글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과 연쇄는 산문과 같이 연과 행 구분을 주지 않아도 리듬감을 부여한다.

14. ①

기준 세우기 [A]와 [B] 모두에서 ‘울음’에 주목하고 있다.

정답 분석

[A]의 풀벌레 소리는 아버지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시킨다. [B]의 귀뚜라미 소리 또한 고독으로 인한 노인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화자의 정서를 ‘무력감’으로 읽어내기 어렵다.

③

대중E-sense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관조적 태도는 특정 대상을 감정을 절제한 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내적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때 깨달음은 시 자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단,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나, 감정이 들어간 평가 등 감정의 표출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에 집중하자.

[A]와 [B] 모두 '울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B]의 경우,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관조적인 관찰이라면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것으로 느낄 수 없다.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가 노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입한 표현이므로 관조적이라 볼 수 없다.

④ [A]와 [B] 모두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대비가 나타나다고 볼 수 없다.

⑤

대중E-sense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시적 상황의 압축적 표현은 산문에서 요약적 제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순간순간 따라가면서 서술하는 것과 요약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의 차이로 보면 된다.

[B]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순간을 따라 서술하고 있다면, [A]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날 밤을 모두 압축해 요약하듯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A]가 [B]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5-18] 문학 - 현대소설

지문 해설

김승옥, 「역사」

수록 지문은 두 장면으로 나뉘는데, '서씨'가 '나'에게 '성벽' 위에서 '금고만 한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는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힘'이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큰 쓸모를 잃게 된다. 기껏해야 남들보다 공사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얻게 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씨'는 공사장에서 그 '힘'을 더 발휘하여 더 많은 보수를 얻지 않고, 힘을 비축하여 밤에 남들 몰래 '금고만 한 돌덩이'를 들어 올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긍정한다. 즉, '서씨'는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질서와 가풍을 중시하는 '양옥집'으로 장면이 전환된 다음부터는 '양옥집 사람들'이 질서에 치우쳐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와 같은 '감정의 요구'를 무시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나'의 비판이 나타나며, 독자는 작가의 가치관인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자기세계에 대한 지향"을 엿볼 수 있게 된다.

15. ③

기존 세우기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누고 표현 기법에 따라 정의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대중E-sense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소설의 해당 지문에 등장한 인물은 서씨, 나, (주인)할아버지[이하 하숙집 인물들]이다. '나'는 서술자로 분류되며 서씨와 하숙집 인물들에 대한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한다.

서술자가 제시한 서씨의 특성은 긍정적으로, 하숙집 인물들의 특성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명되며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는 당대에만 존재하는 어휘가 드러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정 어휘만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요소는 해당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대중E-sense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시간 혹은 공간이 변화되어야 장면 전환으로 인정된다.

장면 전환은 '그 집'에서의 회상에서 '이 집'에서의 현재 장면으로의 전환(총 1회)이 전부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빈번한 장면전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대중E-sense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현학적인 표현은 자신의 지식과 학식을 뽐내는 표현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어렵게 말하는 대목이 존재해야 현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학적인 표현은 자신의 지식과 학식을 뽐내는 표현이다. 자신의 지식과 학식을 뽐내는 표현은 지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나'가 서씨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맞으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⑤

대중E-sense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한 대상을 둘 이상의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경우를 입체적이라고 한다. 특정 요소(관점, 공간, 대상, 감각)가 둘 이상으로 엮이면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곳(동대문, 그 집, 이 집)에서 서술자는 모두 '나'로, 서술자는 바뀌지 않았다. 서술자를 공간적 배경에 따라 달리한다면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술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입

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

16. ②

기존 세우기 지문의 부분에 대한 맥락을 읽는 문제이다. 반드시 밑줄의 앞뒤 맥락까지 파악해서 정오 판단해야 한다.

정답 분석

㉠ 부분은 자신의 힘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서씨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의 재산인 ‘힘’은 현대에 와서 더 이상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했다. 남들보다 큰 ‘힘’은 공사판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는 그 부분에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남몰래 동대문에서 돌을 옮기며 ‘명부의 선조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에서 선조의 영광이 보존되었다고 한 부분은 유용성이 아니라, 선조들과의 일체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힘을 비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분석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를 맨손으로 들어올린 행위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경이로움을 알 수 있으며, 특히 ㉡ 뒷부분에서 ‘나’가 인정하며 귀기에 차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에게 경이로움을 알 수 있다.
- ③ 해당 문단 첫 부분에서 ‘나’는 ‘안주’에의 동경을 추구하나, 곧 그는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히려 ‘권태’와 ‘혐오증’을 느낀다는 점에서 ㉡의 맥락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스스로의 감정 변화를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바로 뒤의 문장을 통해 ‘나’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이 집의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⑤ ‘위대한 가풍’은 풍자적 표현으로,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이 미상을 돌리는 시간으로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②

기존 세우기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무엇이 공통으로 묶이는지, 무엇이 차별화되는지 파악하며 푸는 것이 관건이다.

정답 분석

㉠은 ㉡, ㉢, ㉣, ㉤와 달리 ‘나’ 자신이 스스로 이끈 충동적인 시간이다.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는 불현 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 ㉢, ㉣, ㉤는 ‘할아버지’가 정한 규칙적인 시간이다. 즉, ㉡~㉤의 함축적인 의미는 정해진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시간과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해진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시간이다.
- ③, ④ ㉢의 ‘기타 켜는 시간’은 ㉡의 ‘미상을 돌리는 시각’과 동일하게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으로 배치되었으므로, 이는 정해진 규율에 의해 규정된 시간이다.
- ⑤ ㉤는 사실상 ㉢, ㉣와 같은 시간이다. 이 역시 ‘주어진’ 시간이기에 규정된 시간이다.

18. ③

기존 세우기 〈보기〉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소설이 구성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비사실적 내용이 어떠한 시점에서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서씨’가 ‘성벽’ 위에서 ‘금고만 한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옮긴 대목은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씨’의 ‘족보’에 수많은 역사(力士)들이 존재함이 서술되는 부분이 제법 그럴싸한 사실성을 부여하면서, 낯선 이의 눈에는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정답 분석

외국인의 입장에서 [B]의 상황은 ‘서씨’ 가계의 내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A]의 ‘서씨’가 ‘돌덩이’를 들어올린 행위에 대해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서씨’가 들어올린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비사실적인 소재이며, 〈보기〉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 ② ‘동대문’은 낯선 배경이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는 낯선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눈에는 결코 낯선 배경이 아니다. 또한 ‘동대문’이 독자가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동대문’은 오히려 친근한 소재로, 실감을 돋군다고 할 수 있다.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A]에서 ‘서씨’의 모습을 제법 판타지하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변형’하려는 의도는 맞으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모습에서 신성한 면모로 변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씨’의 모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는 것이지, 이것이 환상이었음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19-21] 문학 - 고전사나

지문 해설

안민영, 「매화사」

화자는 매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백발옹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매화의 향기,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모습 등을 예찬하고 있다.

19. ③

기존 세우기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누고 먼저 표현 기법에 따라 정오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대중 E-sense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감각적 심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과 공감각 혹은 복합 감각적 표현을 말한다. 이때 어떤 사물을 하나 시에 등장시키더라도 이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이 없는 시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 선지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는 여

러 감각을 활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각적 심상은 물론이고, <제3수> '가만이 향기 노아'와 같이 후각적 심상을 사용해 매화의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또한 <제6수> '찬 기운'에도 불구하고 '봄뜻'을 뺏기지 않는다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 예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 매화의 긍정적 속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시적 긴장감은 '표시적 기능인 외연과 암시적 기능인 내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감'을 말한다. 쉽게 말해, 그 시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

반어는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내포)과 표현 자체(외연)가 반대되는 경우이므로 대표적으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반어적 표현이 있지만 확인하면 되는 선지이다.

실전적으로 시는 함축 혹은 상징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은 '여운', '사상의 집약과 유사한 의미에서 항상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어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②

대중E-sense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화의 형식은 화자와 청자가 등장해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구조로, 말을 건네는 방식(대화체, 대화적 어투)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친밀감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로, 화자가 대상에 공감을 하거나 예찬을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매화를 '너'라 칭하며 말을 건네고 있으며,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면서 예찬하고 있으므로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대상인 '매화'의 발화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백발옹'의 발언도 없으므로 대화의 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해설자 TMI

최근에는 대화체, 대화적 구성 등의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 이들을 굳이 구분하여 애를 쓰지는 말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④

대중E-sense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감정 이입은 자연물과 같은 대상에 화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ex) '밤을 세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1998학년도 수능)

실제로 별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에 울지는 않았겠지만, 화자는 이런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그 이유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애상감은 '슬픈 감정'이다. ㄹ(슬플 애)

화자가 '매화'에서 찾은 속성들인 의지, 절개 등은 화자의 감정이 아니라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속성들이다. 감정 이입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작품 전반에 걸쳐 슬픈 정서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⑤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봄름', '찬 기운'이 매화가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은 아니다.

20. ④

기준 세우기 사실상 표현상의 특징 문제이다.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끊어 판단하자.

정답 분석

제8수에서는 '매화'를 '적축', '두견화'와 비교해,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도 필 수 있는 꽃은 매화뿐이라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이 아닌, 차별점,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매화 그림자가 비치는 창, 달이 뜨는 배경, 금비녀를 한 미인과 두세 명의 백발노인이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대중E-sense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의인화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평가원에서는 활유와 의인을 구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건 사람까지는 아니고 활유법 정도 아닐까'하는 고민은 하지 말자. 참고로 사물이나 동물을 '너'라고 지칭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도 의인법에 해당된다.

제3수의 '눈 속에 네로구나', '너 뿐인가 흐노라'에서 '매화'를 향해 '너'라고 부르며 의인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봄름'과 이로 인한 '찬 기운'은 매화를 '침노(성가시게 달라붙어 해침)'하여 '얼우려(얼리려)'하는 시련을 상징한다. 화자는 이러한 시련에도 매화는 '봄뜻'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예찬함으로써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봄뜻이야 아슬소냐', '매화뵈게 뉘 이시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⑤

기준 세우기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게 각 시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연결하며 읽어야 한다.

1.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 감상하는 태도
2. 당대의 이념적,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

3.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4.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정답 분석

‘봄꽃’을 당대의 이념적, 규범적 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면 시련을 겪으면서도 잃지 않는 절개, 지조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추운 시기에도 꽃을 피우는 그 자체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2의 태도로만 국한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자 TMI

〈보기〉에서 1의 태도를 ‘바탕’으로 2~4의 태도가 ‘덧붙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미 2의 태도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접근했어도 좋다.

오답 분석

- ① 매화가 비치는 창을 보면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리(노래)’를 부르고 있다. ‘매화’로 인해 불러일으켜진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요소로 적절하다.
- ② 매화가 비치는 창을 보면서 ‘잔’을 들고 ‘백발옹’들이 서로 술을 권하는 모습은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절하다.
- ③ ‘황혼월(저녁달)’은 매화의 향기와 함께 어우러져 매화의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부각시킨다. 우아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미적 감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 ④ ‘아치고절’의 뜻풀이를 보면, ‘우아한 풍치(심미적)와 높은 절개(규범적 가치)’로 심미적 가치와 규범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일 문법 : 금주 복습 1 + 독서

빠 른 정 답

1	해설	2	해설	3	해설	4	○	5	○
6	○	7	X	8	○				
9	교통 : 관형어/명사 무시한 : 관형어/동사 잘못이 : 주어/명사 + 조사								
10	잘못 : 부사어/부사 쪽지 : 관형어/명사 잘 : 부사어/부사								
11	하늘에 : 부사어/명사 + 조사 생각보다 : 부사어/명사 + 조사 멀리 : 부사어/부사								
12	새 : 관형어/관형사 후에 : 부사어/명사 + 조사								
13	보다 : 부사어/부사 너에게 : 부사어/대명사 + 조사								
14	그 : 관형어/관형사 먼 : 관형어/형용사								
15	그가 : 주어/대명사 + 조사 이 : 관형어/관형사 오래 : 부사어/부사								
16	③	17	③	18	②	19	①	20	②
21	③	22	①	23	③	24	③	25	⑤
26	⑤								

해 설

[1-15] 문법

1.

정답 분석

‘나는’, ‘거실에서’, 소식을 ‘은 각각 ‘나/는’, ‘거실/에서’, ‘소식/을’로 나누어지는 ‘Nh’에 해당한다. ‘놀라운 소식’은 관형어 ‘놀라운’이 체언 ‘소식’을 꾸며주므로, 놀라운이 ‘○’이며 ‘소식’이 ‘N’인 ‘○ → N’에 해당한다. ‘거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부사어 ‘거실에서’가 용언 ‘들었다’를 꾸며주므로, ‘거실에서’가 ‘△’이며 ‘들었다’가 ‘V’인 ‘△ → V’에 해당한다.

2.

정답 분석

‘아기가’, ‘침대에서’는 각각 ‘아기/가’, ‘침대/에서’로 나누어지는 ‘Nh’에 해당한다. ‘넓은 침대’는 관형어 ‘넓은’이 체언 ‘침대’를 꾸며주므로, ‘넓은’이 ‘○’이며 ‘침대’가 ‘N’인 ‘○ → N’에 해당한다. ‘조용히 잔다’는 부사어 ‘조용히’가 용언 ‘잔다’를 꾸며주므로, ‘조용히’가 ‘△’이며 ‘잔다’가 ‘V’인 ‘△ → V’에 해당한다.

3.

정답 분석

‘산이’,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산/이’, ‘우리나라/에서’로 나누어지는 ‘Nh’에 해당한다. ‘저 산’은 관형어 ‘저’가 체언 ‘산’을 꾸며주므로, ‘저’가 ‘○’이며 ‘산’이 ‘N’인 ‘○ → N’에 해당한다. ‘가장 험준하다’는 부사어 ‘가장’이 용언 ‘험준하다’를 꾸며주므로, ‘가장’이 ‘△’이며 ‘험준하다’가 ‘V’인 ‘△ → V’에 해당한다.

4. ○

정답 분석

‘너는 너대로 갈 길을 가거라.’에서 ‘너대로’는 ‘너’ 뒤에 ‘대로’가 결합한 ‘Nh’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대로’는 ‘h’인 조사에 해당한다.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라.’에서 ‘도착하는 대로’는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주는 ‘○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대로’는 ‘N’인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대로’의 품사는 다르다.

5. ○

정답 분석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우리 집에 왔다.’의 ‘세 사람’에서, ‘사람’은 체언이므로 N에 해당한다. ‘사람’ 앞에 오는 ‘세’는 ‘사람’을 꾸며주므로, ‘세 사람’은 ‘○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세’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6. ○

정답 분석

‘시기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뿐이다’의 ‘뿐이다’에서, ‘이다’는 ‘h’인 조사에 해당한다. 격 조사 ‘이다’는 ‘Nh’와 같이 체언과만 어울려 쓰이므로, ‘뿐’은 ‘N’인 체언에 해당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 중 ‘뿐’은 명사에 해당한다.

7. X

정답 분석

‘권의같이 똑똑한 친구는 드물다.’의 ‘권의같이’는 ‘권의’ 뒤에 ‘같이’가 결합한 ‘Nh’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같이’는 ‘h’인 조사에 해당한다. ‘상욱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에서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주는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같이’는 ‘△’인 부사어에 해당하며, 그 품사는 부사이다. 따라서 앞의 ‘같이’는 뒤의 ‘같이’와 달리 조사에 해당한다.

8. ○

정답 분석

‘잘생긴 강사 다섯이 모였다’의 ‘다섯이’는 ‘다섯’ 뒤에 ‘이’가 결합한 ‘Nh’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다섯’은 ‘N’인 체언에 해당하며, 수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잘생긴 다섯 강사가 모였다’의 ‘다섯 강사’는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주는 ‘○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다섯’은 ‘○’인 관형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9.

4일 문법 : 금주 복습 1 + 독서

정답 분석

‘교통’은 뒤의 ‘신호’를 꾸며주므로, ‘교통 신호’는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은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교통’의 품사는 명사이다.

‘무시한’은 뒤의 ‘운전수’를 꾸며주므로, ‘(교통 신호를) 무시한 운전수’는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시한’은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무시한’의 품사는 동사이다.

‘잘못이’는 명사 ‘잘못’과 조사 ‘이’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잘못이’의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10.

정답 분석

‘잘못’은 뒤의 ‘알았지만’을 꾸며주므로, ‘잘못 알았지만’은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잘못’은 ‘△’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한편, ‘잘못’의 품사는 부사이다.

‘꼭지’는 뒤의 ‘시험’을 꾸며주므로, ‘꼭지 시험’은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꼭지’는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꼭지’의 품사는 명사이다.

‘잘’은 뒤의 ‘봤다’를 꾸며주므로, ‘잘 봤다’는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잘’은 ‘△’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한편, ‘잘’의 품사는 부사이다.

11.

정답 분석

‘하늘에’는 명사 ‘하늘’과 조사 ‘에’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으므로 ‘하늘에’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생각보다’는 명사 ‘생각’과 조사 ‘보다’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부사격 조사 ‘보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생각보다’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멀리’는 뒤의 ‘날아갔다’를 꾸며주므로, ‘멀리 날아갔다’는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멀리’는 ‘△’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한편, ‘멀리’의 품사는 부사이다.

12.

정답 분석

‘새’는 뒤의 ‘친구’를 꾸며주므로, ‘새 친구’는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는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새’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후에’는 명사 ‘후’와 조사 ‘에’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으므로 ‘후에’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13.

정답 분석

‘보다’는 뒤의 ‘나아진’을 꾸며주므로, ‘보다 나아진’은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다’는 ‘△’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한편 ‘보다’의 품사는 부사이다.

‘너에게’는 대명사 ‘너’와 조사 ‘에게’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부사격 조사 ‘에게’가 사용되었으므로 ‘너에게’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14.

정답 분석

‘그’는 뒤의 ‘소년’을 꾸며주므로, ‘그 소년’은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그’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먼’은 뒤의 ‘산’을 꾸며주므로, ‘먼 산’은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은 ‘O’에 해당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먼’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15.

정답 분석

‘그가’는 대명사 ‘그’와 조사 ‘가’가 붙어 있는 ‘Nh’에 해당하며,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으므로 ‘그가’의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이’는 뒤의 ‘사실’을 꾸며주므로, ‘이 사실’은 ‘O → 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O’에 해당하며,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이’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오래’는 뒤의 ‘지나지’를 꾸며주므로, ‘오래 지나지’는 ‘△ → V’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래’는 ‘△’에 해당하며,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한편 ‘오래’의 품사는 부사이다.

[16-18] 독서 - 과학, ‘인간의 후각’

16. ③

출제 의도 세부 정부와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서 다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정답 분석

[3문단 5문장] [대소 변환]

박하향의 탐지 역치는 메탄올의 탐지 역치보다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1문단 3문장] [어휘 변환]

취기재의 분자가 후각 수용기를 자극한다는 것은 후각 수용기가 취기재의 분자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 1문장] [재진술]

후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한 것과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 3문장] [재진술]

개는 10억 개, 인간은 1천만 개의 후각 수용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 2문장] [재진술]

인간은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③

출제 의도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확인한다.

정답 분석

[5문단 2~5문장, 6문단 1~2문장][축약][변화와 불변]

본문의 실험을 통해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냄새에 대응 되는 명명 체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탐지 역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6문단 4문장][어휘 변환]

어떤 냄새를 맡은 경우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 1~4문장][축약]

실험 참여자가 틀린 답을 하면 그때마다 정정해주는 과정이 '학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 1~2문장][축약]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10만개지만 인식하는 취기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 5문장][조건/냄새의 세기 구별]

농도가 11% 이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므로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다.

18. ②

출제 의도 ㉠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 문장의 앞과 뒤를 함께 참고하여 어느 조건에서 해당 현상이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정답 분석

[4문단 2~4문장][축약][조건/㉠은 언제 발생하는가?]

냄새가 나는 지 안 나는지의 정도를 탐지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를 넘어야 한다.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한다. 따라서 '탐지 역치 이상~탐지 역치 3배 미만'의 농도라면 ㉠의 경우가 된다. 이에 해당하는 선지는 ②이다.

[19~21] 독서 - 기술, '플래시 메모리'

19. ①

출제 의도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의 경우 지문을 읽고 바로 정답 선지를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본문을 한 번 읽은 후 선지들을 끊어 읽으며 해당 선지의 정오를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문단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2~4문단에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 플래시 메모리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분석

[축약]

1문단과 <그림>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설명한 후,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선후 도치]

먼저 사용 방법을 제시한 후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논점 일탈]

마지막 문단에서 셀 면적에 대해 다루고는 있지만,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논점 일탈]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제시했지만, 제작 원리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논점 일탈]

마지막 문단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에 대해서 다룰 뿐, 단점과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②

출제 의도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기술 지문에서 대상(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묻는 문제의 경우, 해당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사용 방법)'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본문을 읽을 때 해당하는 내용들의 내용과 위치에 집중한다.

정답 분석

[3문단 7문장, 4문단 3문장][축약][속성대비 추론][조건/플래시 메모리에서 터널 절연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가는 원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터널 절연체와는 달리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를 사용한다면 전자들의 이동이 불가능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2문단 1~4문장][축약][존재 유무/개연성 추론]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 2문장][주어 변환]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EPROM'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 2문장][주어 변환]

셀 면적이 크다는 것은 EPROM이 아닌 'EEPROM'의 단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5문단 5~6문장][축약][어휘 변환][논리 변환]

'전원을 꺼도'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력을 계속 공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③

출제 의도 <보기>의 상황에 본문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했으므로 왼쪽의 셀이 1, 오른쪽의 셀이 0이기 때문에 <10>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1단계)과 '데이터를 쓰는 과정'(2단계)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며,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해 모든 셀을 0의 상태로 만든다. 2단계에서는 1을 쓰려는 셀에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해 해당 셀을 1의 상태로 만든다.

적용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으므로 1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상태(0과 1)와는 상관없이 '모든' 셀의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과 ㉡에 전압이 가해져 <00>의 상태가 된다. 데이터를 <01>로 수정해야하므로 2단계에서는 오른쪽 셀의 G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에 전압이 가해진다.

정답 분석

[길잡이][적용]

길잡이와 적용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2-26] 독서 - 예술,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 ■ 문제에서 얻어 가기(SKIMMING POINT)

23.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의도 파악에 신경 써야겠군. 본문에 의도가 명시된 부분이 있거나(사실적 사고 독해), 의도를 추론해야 할 문장(추론적 사고 독해)이 존재할 것이다.

25. 고프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쪽 견해로 다른 한 쪽 견해를 판단하는 문제겠군. 고프리치와 굿맨의 견해와 특징, 인상주의자들의 견해와 특징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을 주목하자.

26.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이론이 등장하는군. 이론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겠군. ㉠의 앞뒤를 주목하며 읽어야겠다.

27.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읽으면서 풀어도 되는 문제!

1문단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3)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4)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1)-1 중심 소재 등장

'회화적 재현'이 중심 소재다.

이 글을 이끌어 갈 중심 소재에 집중하자.

1)-2 의문문 등장

⇒ 전개 방향의 핵심적 역할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에 대한

대답이 등장할 것! (닮아야 한다. or 닮지 않아도 된다.)

1)-3 '즉'을 통한 어휘 의미 파악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

⇒ 회화적 재현 =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는 것.

※ 독서에서 의문문의 특징

1) 일반적 의문문

특징 ①: **지문**에서 **답** 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등장

특징 ②: **전개 방향**의 **핵심적 역할** 할 것.

ex) '이 가설을 입증해주는 관찰사례는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봐놓고 도망가거나 다른 소리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가설을 입증해주는 관찰 사례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나올 것.

2) 통념적 의문

⇒ 통념을 제시하고 과연 이 통념이 맞을까? 라고 제시하는 경우, 이후 **통념에 잘못** 있다고 서술될 **통념에 높음**을 주지 않는 **반의어** 연결

3)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장으로 등장하는 의문문

⇒ 독자에게 여운 효과

※ 즉, 곧, 이처럼, 이와 같이 등의 특징

1) 문장끼리: 앞뒤는 내용상 서로 동일(=재진술)

- ① 일반화-구체화, 요약-세밀, 개념-뜻풀이
- ② 구체화-일반화, 세밀-요약, 뜻풀이-개념

2) 문단 앞: **문단 첫 문장**로 **즉, 곧, 곧**과 **이와 같이** 등 **등장**한 **앞의 문단** **내용**을 **여기까지** **문단** **내용** **중요한 역할** 하는 효과

2)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등장하였네요!

⇒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 사례를 통해 대답!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답아야 한다 or 답지 않아도 된다.]

3, 4) 서술 전개 띄밥 등장

⇒ 이 에피소드는 ① 미술사의 차원과 ② 철학적 차원

◎ 독해 포인트

우선 미술사의 차원에서 그다음은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각각 설명하는 전개 흐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잡자!

◆ 1문단 요약

중심 소재 등장(회화적 재현), 의문문(그림과 대상이 답아야 할까?)



사례(Episode)를 통해 대답. [답지 않아도 된다.]

Why? 미해결 **결론** 띄밥



‘앞으로 답게 될 것이다.’

미해결 **결론** 띄밥



회화적 재현 → ① 미술사의 차원, ② 철학적 차원

◆ 1문단의 특징&포인트

1. 1문단은 박세기

중심 소재, 띄밥, 전개 방향 캐치하기

2. 띄밥? - 회수!

이후 전개될 내용에서 미해결 요소들이 해결될 것

띄밥 1: 답지 않아도 된다. ▶ 이유는?(설명 불충분)

띄밥 2: 앞으로 답게 될 것이다. ▶ 이유는?(설명 불충분)

3. 전개 흐름 추론(미술사/철학)

미술사의 차원에서 설명 후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될 것!

다음 내용을 독해할 때, 세 개를 묶어 생각하여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pisode 띄밥 - 회화적 재현에 대한 해석(미술사의 차원/철학적 차원) - 의도. 이후에 23번 발문이 말한 ‘의도’가 설명될 것이다. 늘 23번에서 말한 ‘의도’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읽자.

2문단

¹⁾우선 어떻게 답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²⁾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³⁾현대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

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⁴⁾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⁵⁾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⁶⁾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1)-1 띄밥1 해결의 조짐

의문문은 전개 방향의 핵심적 역할!

예상대로 의문 ‘그림과 대상이 답아야 할까?’와 episode를 통한 대답이 역시 주 전개 내용이다.

1-2) 묶어 생각하기

[어떻게 답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 - 미술사의 흐름]

전개 추론 연습

띄밥1이 미술사와 대응되면, 띄밥2는 철학과 연결되나?

⇒ 두 머지 하지만, 좋은 추론

1-3) 서술 전개 띄밥(‘미술사의 흐름’ 주목!)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통시적 전개 흐름이 나올 것!

2, 3)-1 미술사의 흐름 즉 ‘미술사의 차원’에서의 설명

미술사의 흐름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답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독해하기

2, 3)-2 대상 묶어 생각하기 ▶ 24번 ③선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즉 인상주의자들(사실성 추구)

① 원근법을 사용

②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

이후의 설명에서 ‘그러나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성 외에 다른 것을 또 추구하였는데’ 하면서 둘의 특징이 대비되지 않는 이상 같은 것으로 묶어 보아야 한다. 이것이 24번을 푸는 독해 포인트이다.

(만약 인상주의자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차이점을 드러내면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며 읽어야 할 것.)

4, 5, 6) 대상 묶어 생각하기

인상주의자들(사실성 추구) 즉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① 사실성 추구

① 원근법을 사용

② 모든 대상 = 빛이 반사되는 물체

② 사실적인 그림

③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

④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

⑤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

⑥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⑦ ex. 모네의 난가리 연작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 2문단 요약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문단의 **떡밥1**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 - ① 미술사의 차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 인상주의자들

◆ 2문단의 특징&포인트

1. ① 미술사의 차원과 ② 철학적 차원 중 ①부터 서술 시작
미술사의 차원에서 설명이 끝나면 철학적 차원에서의 설명이 시작될 것!

2. 1문단의 떡밥1 해결의 조짐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 설명될 것이다.

3. 전개 흐름 추론(통시 전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통시적 전개 흐름이 나올 것!

4. 대상 묶어서 독해하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 인상주의자들(사실성 추구)

세잔

↔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본질이나 실재

↔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외관

3, 4)-1 세잔

- ①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
- ②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 ③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 ④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 ⑤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문제의식

3, 4)-2 문장을 통한 특징 추론 ▶ 24번의 ①선지와 집결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 모네의 그림에는 윤곽선 X

◆ 3문단 요약

세잔

(①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무엇이 다른가? 사실성!



세잔의 특징

◆ 3문단의 특징&포인트

1. 통시적 흐름(미술사의 흐름)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2. 대비 코드: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세잔

↔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본질이나 실재

↔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외관

3. 글의 흐름 놓치지 않기

1문단의 떡밥 이후 철학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전개

3문단

1)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2)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③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4)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미술사의 흐름’ 놓치지 말자(통시적 전개 흐름)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1-2) 속성 대비

세잔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후 설명될 것이다. 차이점 및 대비 코드가 등장하니 집중해서 읽자.

2) 대비 코드 등장

⇒ ‘사실성’에 대한 관점 차이

4문단

1)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2)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3)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 ‘미술사의 흐름’ 놓치지 말자(통시적 전개 흐름)

①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 ③ 입체주의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2) 입체주의의 특징에 대해 설명

◎ 독해 포인트

대상 묶어서 보기 ⇒ 24번 (다) 푸는 핵심

① ‘계승’을 통해

‘세잔 - 입체주의’의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

2문단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인상주의자들을 묶어서 본 것처럼 세잔과 입체주의도 묶어서 보는 것이 핵심이다.

② ‘실재’를 통해

‘세잔 - 입체주의’의 속성의 공통점을 보아야 한다.

3문단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3문단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3)-1 ‘스타인의 초상화’는 ‘② 세잔에서 ③ 입체주의’로의 작품

①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 ③ 입체주의

입체주의는 세잔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입체주의와 세잔, 둘의 차이점이나 대비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타인의 초상화’를 세잔의 특징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문단 속 문장 간의 유기성 보기

1문단 2문장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2문단 1문장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4문단 3문장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

⇒ ‘스타인의 초상화’는 ‘② 세잔에서 ③ 입체주의’로 작품 ‘아비뇰의 아가씨들’은 ③ 입체주의 작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잔 - 입체주의’를 묶어서 봐야 한다. 세잔의 특징과 견해로 24번의 (다)를 풀어야 함!

※ ‘물론’, ‘비록’

역할: 글쓴이의 주장 또는 설명 내용에 대한 예상 반론을 미리 차단함.

특징: 다시 본인 의견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역접접합접합! 자주 등장장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 ovs 71p)

물론~(상대방의 반론)~ 하지만~(다시 의견으로)~

Ex. 2020학년도 6월 학평 미토콘드리아 지문

“비록~과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과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 4문단 요약

세잔을 계승한 입체주의

입체주의의 특징



‘스타인의 초상화’는 ‘② 세잔에서 ③ 입체주의로’의 작품

◆ 4문단의 특징&포인트

1. 통시적 흐름 (미술사의 흐름)

①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② 세잔 → ③ 입체주의

2. 대상 묶어서 독해하기.

세잔 ⇄ 입체주의

3. 1문단의 떡밥1 해결 ▶ 23번의 ‘의도’

어떻게 답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 ⇒ 본질, 실재

4. 이후 철학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전개 놓치지 않기

5문단

¹⁾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답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²⁾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³⁾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⁴⁾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1)-1 아직 미해결된 떡밥2 해결의 조짐

1)-2 역접 접속사(하지만)를 활용한 전개 흐름 전환

2, 3) 의문문 등장!

어떻게 답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후에** 등장할 것

4)-1 ② 철학적 차원 등장!!

예상대로 미술사의 차원에서 설명 후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 1문단은 전개 흐름의 떡밥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것! 늘 기억하기!

4-2) 2문단에서 언급한 전개 추론 연습

떡밥1이 미술사와 대응되면, 떡밥2는 철학과 연결되나?

⇒ **부합! 예상과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음.**

미술사의 차원 - 떡밥1

철학적 차원 - 떡밥2

남은 지문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과 견해가 등장할 것이다 25번과 26번 풀이를 위한 핵심 내용이 등장할 것이다. 6문단의 내용을 집중하고, 25~26번 문제를 쥘어 생각하며 읽는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것이 중요하다.

◆ 5문단 요약

‘답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 어떻게? - **떡밥2**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

◆ 5문단의 특징&포인트

1. 1문단의 떡밥1 해결의 조짐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철학적 차원)을 통해 어떻게 답게 된 것 인지가 설명될 것

2. 역접 접속사를 활용한 문장 흐름 전환.

떡밥1 - 미술사의 차원 → **떡밥2** - 철학적 차원

※ 역접 접속사의 역할(○역접 구)

그러나, 그런데, 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등/~에 비해, ~라, ~에 반해, ~와 달리

1. 소재 대비

2. 속성 대비

3. 전개 흐름 전환

㉠ 소재 도출, 개념 도출

㉡ 문제점 도출

㉢ 문장 내 흐름 및 방향성 전환

6문단

¹⁾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²⁾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³⁾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⁴⁾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⁵⁾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곰브리치와 굿맨의 견해 등장

- 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X
- ② 객관적인 사실성 X
- ③ 사실적인 그림이란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다.

◎ 독해 포인트

25번을 풀기 위한 핵심은 **대비 코드(속성 대비)**를 잡는 것!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객관적인 사실성’과 인상주의자들의 사실성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부정하는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인상주의자들의 이론과 **대비 코드**로 보아야 한다.

2)-1 지시어에 주목하자!

‘이 이론’

- =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
- =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는 이론

2)-2 문장 간의 유기성을 파악하자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 -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

2)-3

1.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2. 믿음 체계, 3. 배경 지식 ▶ 지각

3) 예시를 통한 설명 효과

- ① 앞의 내용을 구체화, 뒷받침
- ② 독자에게 신뢰감, 신빙성, 타당성

◎ 독해 포인트

연관성을 봐야 한다! ▶ 26번 풀이의 핵심
[사전 지식, 믿음 체계 - 작품 지각에 대한 영향]

4) 1문단의 떡밥2 해결

5문단 1문장 “의문인 것은 ‘답게 될 것’”

5문단 2문장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이 그림과 실물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

5) ② 철학적 차원의 입장으로 마무리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 6문단 요약

곰브리치와 굿맨의 견해, 주장 등장 - **떡밥2** 해결의 조짐



이론 구체화, 예시를 통해 구체화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 - **떡밥2 해결**



철학적 차원의 입장으로 마무리

◆ 6문단의 특징&포인트

1. 곰브리치와 굿맨의 견해와 이론 파악하기(②철학적 차원)

▶ 25번, 26번 푸는 핵심

2. 1문단의 떡밥2 해결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이 그림과 실물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

3. 속성 대비 포인트 잡기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객관적 사실성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객관적 사실성 **부정**

■ 핵심 특징 & 놓치지 말아야 할 점

1. 1문단은 **백세게**

① 중심 소재 얻어 가기: '회화적 재현'

1문단에서 회화적 재현이라는 중심 소재를 파악해야 했다.

② 중심 논지 얻어 가기: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 NO
통념의 속성이 강한 의문문을 통해 논지를 끌어내고 있다.
이 논지가 글을 이끄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의문문은 항상 주목하자.

③ 떡밥 - 떡밥 수거

떡밥1: 닮지 않아도 된다.

떡밥2: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

위 지문은 1문단에서 던져 놓은 떡밥을 마지막까지 수거해나가는 지문이다. 즉 미해결 요소들을 설명해나가는 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④ 전개 방향 캐치하기: ① **미술사의 차원**/② **철학적 차원**
(미술사의 차원에서 설명 후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될 것!)
1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서술될 것을 예견한다. 이를 파악하면 글을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다.

2. 전개 특징, 전개 떡밥

① 병렬

① 미술사의 차원-**떡밥1**/② 철학적 차원-**떡밥2**

한 개의 떡밥이 미술사에서 다른 한 개의 떡밥이 철학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2문단 1문장에서 바로 추론하면 좋다.

② 통시적 흐름(미술사의 흐름)

①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②세잔 ▶ ③입체주의

2문단 1문장을 통해 통시적 흐름이 나올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 - 미술사의 흐름)을 묶어서 보아야 한다.

3. 견해, 이론 파악

① 미술사 속 대비 코드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세잔&입체주의)

대비되는 특징을 파악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주목해야 24번을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② 곰브리치와 굿맨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26번을 푸는 열쇠이며 곰브리치와 굿맨이 말한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과 사실적인 그림을 인상주의자들의 사실성과 묶어 보아야 한다. 이를 대비 코드로 보는 것이 25번을 푸는 열쇠이다.

4. 묶어서 독해하기.

① 문제에서 캐치한 포인트를 묶어서 생각하기.

'피카소의 의도'

② 미해결 요소와 설명될 내용 묶어서 생각하기.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 - 미술사의 흐름)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 - 철학적 차원,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통해 어떻게 닮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독서에서 연관 포인트들을 잡는 것은 독해력 향상에 매우 좋다.

5. 의문, 역접

① 역접을 통한 문장 흐름 전환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세잔

떡밥1, 미술사의 차원 ▶ 떡밥2, 철학적 차원

② 역접을 통한 속성 대비

르네상스&인상주의자들 ↔ 세잔

떡밥1, 미술사의 차원 ↔ 떡밥2, 철학적 차원

■ 최종적 글의 견해

회화적 재현의 성립에 대한 중심 논지를 의문과 Episode를 통해 드러내고 중심 소재 및 논지 이해를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부터 입체주의까지 미술사의 통시적 흐름과 철학적 차원에서의 해석 등 다양한 글의 흐름을 사용한다. 이 모든 서술은 1문단에 등장하는 핵심 소재 ‘회화적 재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임을 늘 잊어서 안 되는 지문이며, 1문단은 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임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22. ①

출제 의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그림의 사실성에 대한 모네 등의 인상주의자들과 세잔,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자들의 대비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스타인의 초상화에서의 피카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유의하자.

정답 분석

[3문단 2문장]추론

피카소의 스타인의 초상화는 완전한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5문단 1~2문장, 6문단 3문장]추론

지문의 해석에 근거해 보았을 때 피카소의 “앞으로 닳게 될 것이다.”는 훗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 3문장]추론

‘고전적인 미’라는 언어를 사용한 의도는 세잔 이전의 미의 기준인 인상주의자를 의도하고 사용한 표현이다. 의 기준에 맞추어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하였다는 근거는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 3, 4문장]주어 변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한 것은 인상주의자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 2문장]논점 일탈

입체주의는 다양한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것이며, 스타인의 초상화는 완전한 입체주의 그림이 아니라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역동적인 모습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23. ③

출제 의도 〈보기〉그림을 지문의 정보와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해당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해당 그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것이다. 각 화가의 그림의 사실성에 대한 관점 차에 주목하자.

정답 분석

[2문단 2~4문장, 3문단 3문장]대비

인상주의자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원근법 사용을 통해 얻어낸 사실성을 추구하였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물의 외관보다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본 세잔의 그림은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3문단 3문장]어감 변환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 6문장]주어 변환

대상이 빛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은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한 채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인상주의자들에 속하는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 5문장]주어 변환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한 채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인상주의자들에 속하는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 3~4문장]주어 변환

‘세상을 향한 창’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이를 추구한 것이 인상주의자들이다. 세잔은 이에 반해 원근법조차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채 눈에 사물의 외관이 아니라 본질이나 실재에 다가가려 하였으며 입체주의 또한 이런 관점을 이어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③

출제 의도 글에 제시된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지문의 내용이 회화의 사실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6문단에 제시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성에 대한 콤브리치와 굿맨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지를 판단해보자.

정답 분석

[2문단 4문장, 6문단 1문장]대비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하여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콤브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은 없고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므로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6문단 1문장]논점 일탈

콤브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이를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② [6문단 1문장]논점 일탈

콤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 사실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객관적 사실성을 인정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④ [논점 일탈]

4일 문법: 금주 복습 1 + 독서

글에서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6문단 1문장][논점 일탈]

곰브리치와 굿맨은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떤 유파가 사실성을 얻기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25. ⑤

출제 의도 지문에 제시된 이론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은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으로 6문단 1문장, 6문단 2문장을 통해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이론에 합치하는 선지인지를 검토해보자.

정답 분석

[6문단 1~3문장][추론]

비슷한 연필 자국이 보고 있는 그림이 나무를 그린 것인지, 소 떼를 그린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각 나무와 소로 지각되고 있으므로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근거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6문단 2문장][논점 일탈]

서양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동양 문화의 재현 체계를 따른 수목 화나 서군자화를 감상, 곧 지각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지각이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는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② [6문단 2문장][논점 일탈]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이 같다는 것은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 1문장][논점 일탈]

곰브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존재하지 않아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므로 재현 체계가 그렇지 않은 한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사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④ [6문단 2문장][논점 일탈]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후천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선지는 지각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26. ⑤

출제 의도 글의 문맥 속에서 어휘의 뜻을 파악하고 유의어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길잡이 단순한 어휘의 사전적인 뜻만이 아니라 어휘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여 그 뜻을 파악하고 해당 맥락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가자.

정답 분석

㉠의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이라는 뜻을 갖는 '획득(獲得)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습득(習得)'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② '체득(體得)'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또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③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④ '터득(摠得)'은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일 문법 : 금주 복습 2 + 문학

빠 른 정 답

1	④	2	③	3	①	4	②	5	②
6	④	7	④	8	②	9	③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⑤	17	④						

해 설

[1-7] 문법

1. ④

길잡이 〈보기〉는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쓰고, 그 외에는 띄어 쓴다’는 대립적 정보를 잡아내야 한다.

정답 분석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먹을’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 → N’에 해당하며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분석

- ① ‘아는대로’에서 ‘대로’는 ‘아는’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 → N’에 해당하며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② ‘약해질대로’에서 ‘대로’는 ‘약해질’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 → N’에 해당하며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③ ‘생각 대로’에서 ‘대로’는 ‘생각’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뜻하는 조사이므로 ‘Nh’에 해당하며,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⑤ ‘말 만큼’에서 ‘만큼’은 ‘말’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뜻하는 조사이므로 ‘Nh’에 해당하며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2. ③

길잡이 ‘노트’는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품사 분류를 숙지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답 분석

‘두’는 관형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는 수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도’와 ‘만’은 조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동사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④ ‘나무’와 ‘꽃’은 명사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형용사로,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3. ①

길잡이 〈보기〉의 문장을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답 분석

“나는 그 책도 샀다.”라는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의 짜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문장은 주어 ‘나는’, 관형어 ‘그’, 목적어 ‘책도’, 서술어 ‘샀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내리그는 세로줄 왼편에는 주성분인 주어(나는), 목적어(책도), 서술어(샀다)를, 오른편에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그)를 배치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어야 하고, 주어인 ‘나는’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가로로 쌍줄을 그어야 한다. 또한 ‘는’, ‘도’와 같은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어 표시해야 한다.

4. ②

길잡이 문장에서 ‘△ → V’를 활용하여 무엇이 부사어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 분석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는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②의 ‘이상하게’는 ‘오늘은 운이 좋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오답 분석

- ① ‘정말 예쁘다’는 ‘△ → V’에 해당하며,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수식하므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③ ‘높이 뛰어올랐다’는 ‘△ → V’에 해당하며, ‘높이’는 ‘뛰어올랐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매우 높이’는 ‘△ → V’에 해당하며, ‘매우’는 ‘높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④ ‘아주 새’는 ‘△ → V’에 해당하며, ‘아주’는 ‘새’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⑤ ‘다행히’는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5. ②

길잡이 ㉠ 관형사의 경우 ‘○ → N’의 ‘○’에 해당하며, ㉡ 부사의 경우 ‘△ → V’의 ‘△’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분석

㉠ ‘이 사과’는 ‘○ → N’에 해당하며, ‘이’는 명사 ‘사과’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그 책’은 ‘○ → N’에 해당하며, ‘그’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이리 (가까이) 오게’는 ‘△ → V’에 해당하며, ‘이리’는 용언 ‘오게’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그리 (물건을) 보내겠다’는 ‘△ → V’에 해당하며, ‘그리’는 용언 ‘보내겠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6. ④

길잡이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품사의 분류 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분석

‘아홉’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이다.

오답 분석

- ① ‘착실한’과 ‘이다’는 활용하여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③ ‘은’은 보조사이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둘 다 관계언이다.
- ⑤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한’은 형용사이다.

7. ④

길잡이 ‘△ → V에서 V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분석

‘이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매우’는 뒤에 이어지는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설마’는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바로’는 뒤에 오는 명사인 ‘옆’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과연’은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 부사이다. 그러나 ‘정말’은 뒤에 이어지는 형용사 ‘뛰어나군’을 수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8-11] 문학 - 고전소설

지문 해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본처인 사씨가 첩으로 들어온 교씨에게 모함당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두 부인은 유 한림에게 사씨의 안위를 부탁하며 위기에 처한 사씨에게 교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다. 언뜻 사씨에 대한 모함이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후일 교씨는 다시 사씨에 대한 흥계를 꾸미고, 이에 넘어간 유 한림은 사씨를 내치기로 한다. 작중 인물인 유 한림은 사씨와 교씨의 남편이지만, 교씨의 악행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해석된다.

8. ②

기준 세우기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누고 표현 기법에 따라 정오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대중E-sense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대화와 사건으로 심리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심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를 함부로 유추해서도 안된다.

해당 지문은 주로 대화를 통해 서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지 않고 인물의 대화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본인의 감정을 영탄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아아! ~ 돌릴 수 있겠는가?’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작중 인물의 심리

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시비들이 통곡하거나 눈물을 흘렸다는 서술 역시 상황 설명일 뿐이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된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만 서술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인 요소 없이 서사가 진행되지만 한다면, 이는 사실적으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비현실적 요소로 함은 도술을 쓰는 등 누가 보더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알면 되겠다.

초월적인 내용이나 환상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록 지문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해당 작품은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술자의 서술은 그보다 훨씬 양이 적다.

④

대중E-sense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회상과 같은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판단 요소로서 역순행적 구조가 나타났나 확인하면 된다.

특정 인물의 회상 등 역순행적 구성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대중E-sense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서술자의 개입이다. 주로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는 설의적 표현에서 서술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투영된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9. ③

기준 세우기 밑줄 부분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여 정오 판단한다.

정답 분석

사씨가 ‘형클어진 머리’를 하고 ‘처참’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몸이 초췌’했다는 것이지 의복이 낡고 해졌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사씨가 의복을 ‘이기지 못’할 듯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복은 초췌한 사씨보다 훨씬 고급진 소재라고 해야 한다.

오답 분석

① ㉠의 바로 앞 맥락을 확인해 봤을 때 두 부인은 ‘사씨가 없는 것’을 이유로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씨가 배제됨에 대한 불만으로, 사씨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다.

② ㉡ 앞의 맥락에서 두 부인이 사씨에 대한 보호적 언사를 길게

늘어놓는다는 점이 사씨 문제를 ‘가볍게 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과 연결될 때 이는 유 한림이 사씨의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까봐 우려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생에서 존안을 대할 날이 없다는 것은 ‘두 부인’의 얼굴을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예상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보는 사씨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 앞의 맥락에서 사씨는 ‘제가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사람을 타할 수 없다는 ㉠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10. ④

기준 세우기 ㉠ 뒤에 이어지는 사씨의 말로 미루어볼 때, ㉠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씨의 잘못된 판단과 결부되어 해석된다. 사씨의 잘못된 판단은 사씨를 모함하는 교씨의 뒤통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며, ㉠ 역시 사람을 들일 때 백번 조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분석

선지의 ‘사람 속’은 잘 알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을 잘 살펴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로서의 근거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부분은 첩으로 들어올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대목으로 이 역시 ㉠의 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답 분석

- ① 두 부인이 염려한 것은 교씨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씨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씨가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교씨를 부정적으로 보는 두 부인은 ‘새로 들어온 사람’을 경계 하라고 했을 것이다.
- ③ 특정한 사람(교씨)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진 두 부인은 ‘사람이 어떤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 ⑤ 무슨 일이든 남편의 뜻에 따르라는 내용으로, 사람을 조심하라는 두 부인의 충고와는 거리가 멀다.

11. ①

기준 세우기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이후의 장면은 교씨가 유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⑥의 대사가 나온 순간이 해당 장면과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⑥에서 교씨가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처럼 하여 유 한림에게 비춘 거짓 모습이다. 이러한 교씨의 태도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될 수 있겠다.

정답 분석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의 대사는 사씨가 가진 부인의 자리를 뺏으려는 속셈을 숨긴 채 내숭을 떠는 내용으로,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오답 분석

- ②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이라는 뜻으로, 교씨는 경솔하거나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보다는 꾸민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③ 남의 권세를 부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⑥의 대목에서는 교씨가 유 한림의 권세를 부린다고 볼 수 없다. 작품의 다른 수록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볼 수는 있겠다.

- ④ 겉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으로,

- ⑤ 무슨 일이든 남편의 뜻에 따르라는 내용으로, 사람을 조심하라는 두 부인의 충고와는 거리가 멀다.

[12-15] 문학 - 현대시

지문 해설

(가) 정지용_발열

화자는 적막한 여름밤에 열이 나고 아픈 아이를 보고 있다. 열을 내리는 주사도 소용이 없고 약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 열이 나는 아이를 보며 화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나) 김영랑_거문고

바깥에는 이리와 잔나비 떼가 돌아다니고 있고, 화자의 기린은 이들을 피해 마음껏 울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만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 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것이다. 즉, 화자의 기린(거문고)이 울지 못한다는 것에는 화자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 메시지를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는 암담함이 담겨 있다.

(다) 최승호_대설주의보

산속에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며 길을 끊고, 등산객, 산짐승들을 위협하고 있다. 연약한 굴뚝새가 눈보라를 뚫고 날아가보려 하지만 이내 무서운 솔개라도 있는지 외딴집으로 돌아와 숨는다. <보기>에 따르면 이때의 눈보라와 솔개는 민중들(굴뚝새, 등산객, 산짐승)을 서로 고립, 단절시키는 권력 집단의 강압적인 통치를 상징한다.

12. ⑤

기준 세우기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눈 뒤, 먼저 표현 기법에 따라 정호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대중E-sense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했는지는 현재형 어미가 활용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적 정서의 형성은 당연한 말이다.

(가)의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라’, (나)의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다)의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등, 현재형 어미 ‘-누나’, ‘-ㄴ’을 활용하여 ‘애’, ‘기린’, ‘굴뚝새’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대중E-sense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

5일 문법 : 금주 복습 2 + 문학

끼게 한다.

동일한 시행의 반복은 말 그대로 시행의 전체를 변화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을 말한다.

시어, 시구, 문장 구조, 어미 등 작품 외연적 요소의 반복은 운율감, 리듬감 등을 만들어낸다.

(가)에서는 '나는 중얼거리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의 시행 안에서의 반복이므로 시행의 반복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에서는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유사한 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변주를 가미한 반복으로, 동일한 시행의 반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②

대중E-sense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시적 여운은 시를 읽은 뒤 남아있는 운치와 같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지의 '여운'은 항상 맞는 말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번 등장했는지를 보자.

(다)에서는 여러 차례 시행을 명사로 끝맺고 있지만, (가)에서는 11행만을 명사로 끝맺고 있어 반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대중E-sense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의인화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평가원에서는 활우와 의인을 구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건 사람까지는 아니고 활우법 정도 아닐까'하는 고민은 하지 말자. 참고로 사물이나 동물을 '너'라고 지칭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도 의인법에 해당된다.

친근감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로, 화자가 대상에 공감을 하거나 예찬을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애매하다 싶을 때는 반대 개념으로 혹시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라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아닌지 생각해보자.

(나)에서는 '거문고'를 '기린'이라는 상상속의 동물에 비유하고 '맘 놓고 울들 뚫'하는 감정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눈보라'를 '군단'에 비유해 의인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의 '눈보라'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거리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대중E-sense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순의 도치는 서술어 앞에 있어야 할 문장 성분이 서술어 뒤에 배치된 것을 말한다.

시에서의 긴장감은 '표시적 가능한 외연과 암시적 가능한 내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감'을 말한다. 쉽게 말해, 그 시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 어순의 도치

는 사용된 단어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그 배치 순서만 다르다. 이때 그렇게 표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기에, 이미 그 외연 이상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치는 대표적으로 시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법이다.

하지만 보다 실천적으로, 함축이 특징인 운문 문학에서 시적 긴장감은 '여운'처럼 항상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치가 되어 있지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가)의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도치된 표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⑤

기준 세우기 문제를 먼저 보고 ㄱ~을 하나씩 확인하듯 지문으로 들어갔다면 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항상 '유의사항'에 집중하자. '카메라'가 '화자의 시선'에 대응된다는 것을 체크했어야 한다.

정답 분석

카메라 시선이 밤하늘 쪽으로 옮겨간 것(ㄴ)은 '유의사항'에 따르면 화자의 시선이다. 즉, 이때 빛이 흩어진 것(ㄷ)은 화자가 본 광경으로 '애'의 의식이 혼미해진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설자 TMI

막 정신이 없고 아득할 때, '눈앞이 핑핑 도는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작품의 마지막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는 이와 같은 화자의 답답함과 아득함을 느끼게 한다. 혹은 시의 '빛이 흩어지는 느낌'에 더 집중한다면 '눈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답 분석

① '처마끝 밤하늘→애의 등'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ㄱ) 또한 그 등에 '더운 김'이 서리고 있는 상황이다.(ㄴ) 이 과정에서 처마가 있는 어떤 집, 밤에 아이가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작품의 초반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② 단어 뜻풀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붉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붉은 이미지(주사 짙은 자리)는 열병의 상황을 보여주며, '가쁜 숨결'은 그 고통을 강조해준다.

③ '가녀린 머리'와 '주사 짙은 자리'에 화자가 '입술을 붙이고' 있다. 이를 카메라로 대응시키면 클로즈업 기법에 해당한다.

해설자 TMI

화자의 시선이 곧 카메라의 시선인 상황이다. 즉 감상자는 화자의 시선을 공유한다. 이 경우 공감은 당연한 표현이 된다. 각주의 단어 뜻풀이가 문제 풀이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아는 단어라도 한번 짚고 가자.

④ '아아'와 같이 감탄사를 활용해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4. ④

기준 세우기 <보기>에 따르면, (나)와 (다)는 모두 억압받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에 맞춰 각각의 시어가 그 현실의 어떤 대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다.

정답 분석

(나)의 '노인'은 '기린(거문고)'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간 사람이다. 즉, 이는 <보기>의 '맑은 가락'으로 시를 쓸 수 있었던 과거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때 '노인'이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절이 오랜 과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린'이 '노인'에게 외면당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눈보라'로 인해 고립되었다. 이때의 '눈보라'는 <보기>에서 말하는 '권력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권력 집단'의 억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세상 사람들'의 외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보기> 그대로의 진술이다.
- ② (나)의 화자는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을 못한다'라고 비관적 어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다)의 경우에도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과 같이 비관적 현실을 제시하는 그대로 시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속에서도 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굴뚝새'와 같은 존재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울음'은 짐승의 소리로서의 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터뜨리는 울음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다)에서도 '내리는'은 '눈이 내리다'와 같이 볼 수 있으면서, '계엄령을 내리다'와 같이 볼 수도 있다.
- ⑤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몸돌 곳 없'게 한다는 점에서 '내 기린'을 억압하는 존재이고, '술개' 역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추'게 한다는 점에서 '굴뚝새'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15. ⑤

기존 세우기 사실상 표현상의 특징 문제와 같다.

정답 분석

[D]에서 화자는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 선 채' 있다.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이 돌아다니는 밖을 피해 화자가 선택한 은거 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E]에는 '눈보라'로 인해 '산 짐승'들이 길 잃고 굶주릴 듯하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듯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눈보라가 몰려드는 '외딴집'은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으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자아를 성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D]와 [E] 모두 부정적 상황을 더욱 부각하고만 있을 뿐, 해소될 계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 ③ [D]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내'가 '기린'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D]의 대상인 '기린'이 울지 못하는 것은 화자가 '거문고'를 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의 대상인 눈보라는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반대로 [D]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17] 극

지문 해설

이근삼, 「원고지」

등장인물인 장남과 장녀가 해설자로 나서 교수와 처의 상황과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그들의 해설과 반어적인 행위가 벌어진다. 가령 장남이 아버지를 '쾌활'한 얼굴이라고 해설하며 소개하지만,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는 등 되려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후 해설자로 나서는 장녀의 해설 역시 극중 상황과는 상반된다.

16. ⑤

기존 세우기 선지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지문에서 찾은 후 맥락을 파악하여 해당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분석

'철새'는 교수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짐지고 있는 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아내가 이를 풀어주기만 했다면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처가 교수의 '철새'를 풀어주지만 이내 또 하나의 굶은 줄을 다시 감는다는 점에서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배치된다는 말은 반대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된다. 장남의 말에 따르면 교수가 쾌활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와야 하나, 교수의 등장에 '지루한 음악'이 삽입된다는 점에서 이는 장남의 말과 배치된다고 해야 한다.
- ② 원고지 칸 투성이인 양복을 통해 관객들이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임을 알 수 있으며, 원고지 칸 투성이라는 점은 확인된 틀에 얽매인 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 ③ 관객들이 놀랄 만큼 비명같은 하품 소리를 장녀가 달콤한 하품 소리라고 한 것을 통해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켜져있을 때는 장녀의 해설이 이루어지지만, 불이 꺼지면서 해설이 끝나며 대화가 시작되기에 이는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17. ④

기존 세우기 이근삼의 작품에서는 극중 인물이 해설자로 전환되어 관객들에게 인물, 사건, 정보를 해설하거나 배우의 연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동시에 극중 상황에서 몰입을 차단하는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기>의 핵심이다.

정답 분석

장녀는 플랫폼에서 해설을 진행하다가, 해설자로서의 마지막 대사가 끝나고 등장인물들끼리의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플랫폼 불이 꺼지며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는 장녀가 교수, 처와 분리되는 공간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해설자 역할이 부각되는 기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장남의 대사는 자신과 행복하나 가정의 비결,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장남의 대사 속에 처의 행동은 나

5일 문법 : 금주 복습 2 + 문학

타나지 않는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지만, 이 또한 청자의 대답이 없기에 대화로 볼 수는 없다.
- ③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
- ⑤ 장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장녀 본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정보이며, 관객의 생각과 상반되는 해설로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듯 상반된 해설은 오히려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기 어렵게끔 만든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 선지 구성 원리

I. 교체

1. [주어 변환]

문장의 주체 혹은 주어 바꿈의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대종 선생님이 친구에게 문법총론을 주었다.'라는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선지는 '친구가 유대종 선생님에게 문법총론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문장의 주어 혹은 주체를 변환하는 선지 구성 원리이다.

2. [어휘 변환]

한자어를 유사한 고유어로 바꾸거나, 고유어를 유사한 한자어 등으로 바꾸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본 교재에서는 문맥적으로 동일하여 서로 치환 가능한 단어일 때에도 어휘 변환으로 수용한다.

예를 들어, 지문에서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라는 문장이 있다면, 선지는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할 거야.'라는 식으로 변환하는 선지 구성 원리이다.

혹은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라는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지식'과 '이론'은 서로 치환 가능한 언어이며, 이러한 치환의 원리로 적절한 선지를 만드는 경우도 어휘 변환에 해당한다.

3. [인과 도치]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서로 뒤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축구를 못 했다.'라는 내용을 '축구를 못 해서 비가 왔다.'라고 서술하는 오류를 말한다.

4. [선후 도치]

사건 또는 과정의 진행 순서를 뒤바꾸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라는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선지는 '학습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이라는 식으로 과정의 앞과 뒤를 바꾸는 선지 구성 원리이다.

5. [논리 변환]

지문에서 제시된 명제의 논리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역/이/대우 명제를 활용하여 적절한 혹은 부적절한 선지를 만든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유무 변환]

'유대종 선생님은 배가 나왔다.'라는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유대종 선생님은 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선지에 제시하여 오류를 만든다.

7. [범위 변환]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 같은 곳에서 잘 일어난다.'라는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이를 범위 변환이라고 한다.

All/Some(모든/어떤)이 이에 해당한다.

8. [방향 변환]

'사막에서는 빛이 위로 굴절한다.'라는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사막에서는 빛이 아래로 굴절한다.'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이처럼 상하·전후의 위치를 변환하여 오류를 만드는 선지 구성 원리를 방향 변환이라 한다.

9. [대소 변환]

'개는 10억 개의 이르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지문에 있다면, '인간은 개보다 많은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이처럼 대상 간의 많고 적음을 변환하여 오류를 만드는 선지 구성 원리를 대소 변환이라 한다.

10. [대상 변환]

행위의 대상을 교체하여 오류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 주어 변환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환하여 오류를 만드는 것이고, 대상 변환은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환하여 오류를 만드는 것이다.

* 주객전도의 오류의 경우, 주어 변환과 대상 변환 두 오류 모두에 포함되지만, 본 교재에서는 대상 변환에 포함시켰다.

11. [어감 변환] > [변화와 불변]

대립적인 관계의 어휘임에도 유사한 어감을 지녀 혼동을 주는 어휘 쌍들을 말한다. 주가 거듭될수록 하나씩 첨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대상을 변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거나,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변한다고 서술하는 선지 구성 원리이다. 예를 들어, '고정된 임계치'라는 내용이 지문에 있다면 '임계치도 변한다.'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II. 축약(문장 결합)

12. [축약]

'유대종 선생님은 키가 160cm 이하이다.', '160cm 이하의 형광등을 교체할 수 없다.' 이 두 문장을 결합하면 '유대종 선생님은 형광등을 교체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문장을 결합하는 선지 구성 원리를 축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두 문장의 공통된 맥락의 정보를 삭제하여 적절한 선지를 만든다.

III. 탈락

13. [탈락]

'유대종 선생님은 잘생기고 멋지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유대종 선생님은 잘생겼다.'라는 선지는 참이 된다. 탈락은 이렇게 문장 중 일부의 구나 절을 탈락시켜 적절 혹은 부적절한 선지를 만든다.

IV. 첨가

14. [첨가]

원래의 의도와 다른 의도를 삽입하거나 지문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오류를 만드는 선지 구성원리이다.

V. 기타

15. [대비]

지문 속에서 대립적 관계를 지닌 정보를 이용하여 선지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A는 B가 아니라 C다.' 구조에서 B와 C는 대비 관계이다.

* 어감 변환은 사전적 차원의 차이이고, 대비는 문맥적인 차원의 차이이다.

16. [재진술]

지문과 문맥적으로 동일한 문장이어서 서로 치환 가능한 상황의 문장인 경우를 재진술이라고 한다.

*어휘 변환은 단어적인 차원이고, 재진술은 문장 단위의 차원이다.

17. [조건] $\supset$ [요건]

특정 대상 혹은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묻는 선지이다. ‘~이 필요하다.’, ‘~이 없으면 안 된다.’ 방식으로 조건부를 다는 경우는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로 이를 요건이라 부른다.

18. [논점 일탈]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논점에서 벗어나는 선지가 기술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A를 드러내고 있다.’가 선지에 표현되었을 때, ‘A’가 논점에서 벗어나면 오류가 된다.

19. [추론] $\supset$ [전제 추론], [주제 추론]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논리적 혹은 문맥적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명제를 선지로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0. [정의 활용]

지문 속의 ‘a는 B라는 특성을 지닌 A이다($a \in A$)’라는 구조의 문장을 활용하여, 선지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